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심리학석사학위논문

병리적 자기애의 응대성·취약성에 따른  
자존감 및 귀인양식

201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임상·상담심리학 전공

홍 초 룡




# 병리적 자기애의 웅대성·취약성에 따른 자존감 및 귀인양식

지도교수 권 석 만

이 논문을 심리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임상·상담심리학 전공  
홍 초 룡

홍초룡의 심리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12월

위원장	이 훈 신	
부위원장	박 주 용	
위원	권 석 만	

## 국 문 초 록

병리적 자기애는 자신의 성취나 가치를 확인받기 위해 끊임없이 외부의 피드백을 요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성격적 특성으로, 현재 DSM-IV-TR에서 정의하고 있는 ‘자기애성 성격장애’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병리적 자기애와 자존감 및 귀인양식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자기애적 웅대성·취약성이라는 표현형 개념을 도입하였다. 병리적 자기애의 표현형 중 하나인 자기애적 웅대성은 칭찬에 대한 욕구 및 웅대한 환상과 같은 방어적인 특성을 의미하며, 또 다른 표현형인 자기애적 취약성은 불안정한 자존감이나 특권 분노와 같은 기저의 열등감과 관련된다. 본 연구에서는 병리적 자기애를 ‘부정적 사건에 대한 자기조절불능’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정의에 근거해 부정적 사건과 자존감에 초점을 둔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I에서는 199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병리적 자기애척도(PNI), Rosenberg 자존감 척도(RSES), 자존감 안정성 척도(SSS), 귀인양식 척도(ASQ)를 사용해 병리적 자기애의 표현형과 자존감, 귀인양식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자기애적 표현형의 상대적인 수준 차이에 따라 하위유형을 구분함으로써 집단 간 비교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기애적 취약성은 자존감 수준 및 안정성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자기애적 웅대성은 자존감 안정성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자기애적 취약성만이 부정적 사건에 대한 안정적 귀인, 전반적 귀인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병리적 자기애자들 중 자기애적 취약성이 강한 집단의 낮은 자존감이라는 특성이 부정적 사건에 대한 전반적 귀인에 의해 매개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부분매개 효과를 확인해본 결과, 자기애적 취약성과 자존감의 관계를 부정적 사건에 대한 전반적 귀인이 부분 매개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병리적 자기애자들의 낮은 자존감과 같은 부적응적 특성이 부분적으로 부정적 사건을 자신의 전반적인 특징으로 귀인하는 경향성 때문이라는 사실을 의미함으로써 치료적 개입지점을 시사한다.

연구 II에서는 연구 I의 결과를 실제에 적용하고 확대하기 위해 실제와 유사

한 상황에서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 II는 연구 I의 참가자 중 29명을 선발해 실시했으며, 병리적 자기애집단의 자기과시적인 특성을 고려해 보다 미묘한 암묵적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해 암묵적 연합검사(IAT)를 이용하였다. 연구 II에서는 취약성 자기애집단과 웅대성 자기애집단 모두 낮고 불안정적인 암묵적 자존감을 지닌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부정적 사건에 대한 전반적 귀인에서의 차이로 인해 명시적 자존감 수준과 변동 폭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했다. 그러나 연구II의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병리적 자기애의 표현형과 하위유형을 개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병리적 자기애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존감과 귀인양식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IAT라는 암묵적 자존감 측정도구의 적절성 여부와 부정적 사건에 대한 연구만이 수행되었다는 점, 집단 구분 기준의 임의성을 들 수 있다.

주요어 : 병리적 자기애, 취약성 자기애, 웅대성 자기애, 명시적 자존감, 암묵적 자존감, 귀인(양식)

학 번 : 2011-20131

# 목 차

국문 초록 .....	i
서      론 .....	1
병리적 자기애의 정의 .....	2
병리적 자기애의 표현형과 하위유형 .....	4
병리적 자기애와 자존감 .....	7
병리적 자기애와 귀인양식 .....	10
자존감과 귀인양식 .....	12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14
연구 I. 병리적 자기애의 명시적 자존감과 귀인양식의 관계 .....	17
방법 .....	19
결과 .....	22
논의 .....	29
연구 II. 병리적 자기애 하위유형에 따른 명시적 · 암묵적 자존감 및 부정적 사 건에 대한 귀인양식 .....	34
방법 .....	36
결과 .....	40
논의 .....	49
종합 논의 .....	53
참고 문헌 .....	59
부      록 .....	70
영문 초록 .....	90

## 표 목 차

표 1. 연구 I의 분석에 사용된 심리측정치의 기술통계량 (N=199) .....	22
표 2. 병리적 자기애와 자존감, 자존감 안정성 및 귀인양식 간 상관행렬표 .....	23
표 3. 집단 간 자기애적 표현형 및 병리적 자기애 총점 (N=132) .....	24
표 4. 집단 간 자존감, 자존감 안정성의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	25
표 5. 집단 간 부정적 사건에 대한 귀인양식의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	26
표 6. 귀인전반성의 부분매개효과 검정 .....	28
표 7. 연구 II의 핵심 가설 .....	35
표 8. 집단 간 자기애적 표현형 및 병리적 자기애 총점 (N=29) .....	40
표 9. 명시적 자존감에 대한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	42
표 10. 명시적 자존감에 대한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	42
표 11. 취약성 자기애집단의 연구1-연구2 간 명시적 자존감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 결과 .....	43
표 12. IAT 계산 방법 .....	44
표 13. IAT 버전 간 평균 차이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결과 .....	45
표 14. 암묵적 자존감에 대한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	46
표 15. 암묵적 자존감에 대한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	46
표 16. 귀인양식에 대한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	48

## 그 립 목 차

그림 1. 자기애적 취약성-자존감에 대한 귀인양식의 매개효과 .....	18
---	----

## 서론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기에 인간은 고독한 것이다.”

- 프리드리히 빌헬름 니체 -

자신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 자기애는 심리적 성숙을 이룩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심리적 발달단계이자 타인을 사랑하는 능력의 근본이 된다(Freud, 1914/193). 하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능력을 모두가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흔히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우울증 환자와 같이 자존감이 매우 낮은 사람을 떠올리기 쉽지만, 자기애에 대한 확신 없이 타인의 평가에 따라서만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병리적 자기애자야말로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다. 실제로 병리적 자기애자들이 드러내는 ‘웅대함’이라는 특성의 기저에는 자기애에 대한 불확실감과 열등감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병리적 자기애자들의 ‘자기애’는 정상적이거나 건강한 자기애와는 차이를 지닌다. 이처럼 병리적 자기애에는 웅대함과 열등감이라는 모순적 특징이 공존하므로, 둘 중 더 강한 특징이 무엇인지에 따라 매우 차별적인 특성을 지닌 하위유형이 나타나게 된다. 병리적 자기애의 하위유형 중 하나인 ‘내현적 자기애’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기애자라는 말을 듣고 흔히 떠올리게 되는 모습과는 달리,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겸손하고 수줍어 보이며 자신의 성과나 성취에 대해 지나치게 전시하는 경향성을 드러내지 않는다(Akhtar & Thomson, 1982; Cooper, 2000; Wink, 1991). 대신 이들은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민감하거나 부정적인 평가에 직면해 정서나 자존감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등 부정적인 사건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는 특징을 보인다. 내현적 자기애는 DSM-IV-TR에서 규정하는 자기애성 성격장애보다 부적응적인 특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효주, 2010; 양진원, 2012; 이준득, 2005; 조은영, 2011; 최정인, 2009; Ashby, Lee, & Duke, 1979; Baumeister, Smart, & Boden, 1996; Kernis, Grannemann, & Barclay, 1989; Serkownek, 1975; Rathvon & Holmstrom, 1996; Solomon, 1982; Rose, 2000).

병리적 자기애가 핵심적인 특징을 공유하지만 현상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드러



내는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주장은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Akhtar & Thomson, 1982; Cooper & Ronningstam, 1992; Gabbard, 1989; Ronningstam, 2005b; Wink, 1991). 그리고 이와 관련된 경험적 연구의 증거들이 축적되어 병리적 자기애의 하위유형 분류의 타당성에 대한 인식이 공고해짐에 따라, 병리적 자기애의 웅대성만을 강조하는 DSM-IV-TR 진단기준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학계의 비판에 대한 반응으로, 최근 DSM-V 준비위원회는 DSM 공식 사이트에 게재한 개정 공고안을 통해 병리적 자기애의 취약성과 웅대성 중 한 가지만 포함하더라도 자기애성 성격장애로 진단내리도록 진단기준을 개정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병리적 자기애의 하위유형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하위유형 간 현상적 차이를 살펴보는 연구는 자주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하위유형 간 차이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연구는 매우 드물다. 하위유형 간 차이의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하위유형 간 자존감의 차이를 살펴보고 자존감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 변인으로 귀인양식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한편 병리적 자기애에 대한 선행연구들 대부분이 하위유형 간 차이점에 초점을 뒀다 하위유형 간 공통점을 살펴보는 데 소홀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병리적 자기애의 핵심적인 특성으로 부정적 사건에 대한 명시적·암묵적 자존감 불안정을 가정하고 병리적 자기애의 두 하위유형이 자존감 불안정성이라는 특징을 공유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 병리적 자기애의 정의

병리적 자기애는 학자마다 서로 다른 정의를 사용하는 등 정의가 매우 다양한 연구 통합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간혹 병리적 자기애를 DSM-IV-TR의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진단기준으로 정의하는 경우가 있으나,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진단기준을 병리적 자기애의 정의로 사용할 경우 병리적 자기애의 의미가 지나치게 협소해질 수 있다(Blais & Little, 2010).

병리적 자기애의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 학자들이 제시한 병리적

자기애의 다양한 정의를 살펴봄으로써 병리적 자기애의 핵심적인 특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Freud(1914/53)는 자기애를 “심리적 에너지가 자신을 향해 자신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는 태도”로, Akhtar와 Thomson(1982)은 “자기애에 대한 심리적 관심의 집중”으로, Westen(1999)은 “자기애 관한 인지-정서적 몰두”로 정의 내린 바 있다. 한편 Rhodewalt와 Morf(1998)는 최근 들어 자기애의 핵심이 ‘웅대하지만 취약한 자기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고군분투하는 것’과 관련된다는 사실에 대한 의견 일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한다.

DSM의 진단기준보다 광의로 정의된 병리적 자기애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면서 많은 학자들은 병리적 자기애의 핵심이 단순히 웅대한 공상이나 행동 또는 특권 의식적 태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즉 병리적 자기애자들은 웅대성이나 특권의식감과 관련된 ‘자기애적 웅대성’의 특징 외에도 자기평가 시 외부에 의존하는 ‘자기애적 취약성’과 관련된 특징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학자들은 현재 DSM-IV-TR의 진단기준에서 제안하는 바와는 달리, 병리적 자기애의 핵심은 자기애적 웅대성이라기보다는 자기애적 취약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가령, Ronningstam(2005b)은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자기조절불능(dysregulation)’이 병리적 자기애의 핵심이라 주장한다.

병리적 자기애의 핵심에 대한 의식이 변화하면서 DSM-V의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진단 기준도 변경될 것으로 예측되어 왔다(Pincus & Lukowitsky, 2009; Ronningstam, 2009). 최근 DSM-V의 개정 공고안 역시 학계의 예상대로 기존의 진단기준에 비해 자기애적 취약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정의를 변경하였다. 가령,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핵심인 A항의 ‘자기기능의 장애’ 중 정체감(identity) 항목에는 ‘지나치게 타인을 참조하거나 자기평가가 과장되거나 축소되어 있거나 변동이 심한 것’ 또는 ‘자존감의 수준에 따라 정서 조절이 변화’하는 특징이 포함된다. 또한 병리적 성격 특질을 기술한 B항에서는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주요한 특징으로서 적대감(antagonism)을 들고 있다. 적대감에는 기존의 웅대성뿐 아니라 관심 요구(Attention seeking)라는 특징이 함께 포함된다. 관심 요구라는 특징이 포함된 이유는 병리적 자기애자들이 타인의 주의와 관심을 받기 위해 지나치게 노력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타인-참조적 특성이 강하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새로운 DSM-V의 개정공고안은 학계에서 오랫동안 제안돼 오던

자기애적 취약성이라는 개념이 공식적인 정신병리 진단체계에 포함될 것임을 보여준다.

한편 병리적 자기애를 연구하기 위해 반드시 구분해야 할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정상적 자기애’다. 정상적 자기애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사회·성격심리학 분야에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자존감과 정적 상관을 보이고 비판적 평가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정상적 자기애와 달리(Atlas & Them, 2008), 병리적 자기애는 자존감과 부적 상관을 보이는 등 두 개념이 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Maxwell et al., 2010). 따라서 병리적 자기애를 명확히 정의하기 위해 병리적 자기애와 정상적 자기애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Pincus & Lukowitsky, 2009; Rocher, 2010). Pincus와 Ansell(2009)에 따르면, ‘정상적 자기애(Normal Narcissism)’는 자기, 정서, 영역-조절 과정을 통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자기상을 유지하는 능력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 정상적 자기애에는 확신에 대한 욕구,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내현적 또는 외현적으로 자기고양을 추구하려는 동기가 기저에 존재하며, 자존감 및 웰빙에 기여할 수 있다(Oldham & Morris, 1995). 이와는 대조적으로 ‘병리적 자기애(Pathological Narcissism)’는 긍정적인 자기상과 관련된 위협이나 실망스러운 결과를 처리하는 데 있어 유의미한 조절 결함과 부적응적 방략을 나타낸다(Kernberg, 1998; Ronningstam, 2005b).

## 병리적 자기애의 표현형과 하위유형

병리적 자기애는 스스로를 과시하고 전시하려는 자기애적 웅대성의 특징뿐 아니라, 타인의 평가에 예민하고 부정적 평가에 강한 영향을 받는 것과 같은 자기애적 취약성의 특징도 포함한다. 자기애적 웅대성과 취약성에 대해 Wink(1991)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정신분석적 입장에서 설명하는 ‘병리적 자기애’는 양육의 무신경함에서 비롯되어 건강한 자존감의 변환을 방해해 ‘웅대함(grandeur)’을 발달시키는 것과 관련된다. 병리적 자기애의 웅대함은 진정한 웅대함이 아니라 방어적 속성을 지니므로 필히 ‘열등감(inferiority)’을 수반하게 된다. 유아는 웅대함과 열등감이라는 요소가 모순적이므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분리(splitting)의 방어기제를

사용하게 된다. 결국 병리적 자기애자들은 두 가지 관찰 가능한 형태의 모순적인 특성인 ‘웅대함’과 ‘열등감’의 특징을 동시에 드러내게 된다. Wink(1991)는 이러한 이론적 설명을 확인하기 위해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진단기준을 고려하거나 경험적 방법을 통해 개발된 자기애 측정도구들의 요인구조를 분석했다. 그 결과, 다양한 척도들이 두 개의 직교하는 독립적인 차원의 요인을 측정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두 요인을 각각 웅대성-과시성(Grandiosity-Exhibitionism, G-E), 취약성-민감성(Vulnerability-Sensitivity, V-S) 요인이라 명명했다. G-E, V-S 요인 모두 자만심, 자기-방종(self-indulgence), 타인에 대한 무시(disregard)와 같은 자기애의 핵심적인 특징들과 관련된다. 그러나 G-E 요인이 외향성, 자기-확신, 과시주의, 공격성과 관련되는데 비해, V-S 요인은 내향성, 방어성, 불안과 관련되고 삶에서의 외상에 대한 취약성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지닌다.

병리적 자기애에 두 가지 표현형(phenotype)이 공존하므로 표현형 간 상대적인 수준 차이에 따른 현상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이 현상적인 차이에 기초해 병리적 자기애를 두 가지 하위유형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제안해왔다(Akhtar & Thomson, 1982; Cooper, 1988; Dickinson & Pincus, 2003; Gabbard, 1989; Gabbard, 1998; Gersten, 1991; Hendin & Cheek, 1997; Kohut, 1971; Pincus & Lukowitsky, 2009; Pincus et al., 2009; Rathvon & Holmstrom, 1996; Rose, 2002; Wink, 1991; Wink, 1996). 그리고 두 가지 하위유형을 지칭하는 데 다양한 용어를 사용되어 왔다. 가령, Rosenfeld(1987)는 ‘동요하지 않는(thick-skinned) 자기애’와 ‘민감한(thin-skinned) 자기애’, Gabbard(1989, 1998, 2009)는 ‘의식하지 못하는(Oblivious) 자기애’와 ‘과민한(Hypervigilant) 자기애’, Masterson(1993)은 ‘전시적(Exhibitionistic) 자기애’와 ‘폐쇄적(closet) 자기애’, Ronningstam(2005b)은 ‘거만한(Arrogant) 자기애’와 ‘수줍은(shy) 자기애’를 제안한 바 있다. 다양한 용어 중 현재 가장 널리 수용되고 있는 용어는 Akhtar와 Thompson(1982), Cooper(1981)가 제안한 ‘외현적 자기애(Overt Narcissism)’, ‘내현적 자기애(Covert Narcissism)’다.

외현적·내현적 자기애라는 용어를 사용해 병리적 자기애의 하위유형을 구분한 연구는 매우 방대하다(김방글, 오수성, 2009; 박세란, 2004; 백승혜, 현명호, 2008; 이준득, 2005; 이지원, 장은영, 2011; 최정인, 2009; 최혜정, 장문선, 2011; Foster & Trimm, 2008; Otway & Vignoles, 2006; Revik, 2006). 연구결과에 따르면, 외현적

자기애집단은 자기평가가 긍정적이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보고하지 않는데 비해 내현적 자기애집단은 자기평가가 부정적이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박세란, 2004). 또한 외현적 자기애집단은 자기개념 명료성에서 통제집단과 차이가 없고 특질분노 수준은 다소 높지만 분노억제 경향성은 낮은 반면, 내현적 자기애집단은 자기개념 명료성이 낮고 적대적이며 특질분노 수준이 높은데 비해 분노를 억제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이준득, 2005). 외현적 자기애집단은 계획 다시 세우기, 긍정적 초점 변경, 조망확대, 긍정적 재평가와 같은 인지적 정서조절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내현적 자기애집단은 우울과 수치심을 더 자주 느끼고 타인비난, 반추, 파괴화 등의 인지적 정서조절방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도 존재한다(최정인, 2009).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외현적 자기애집단은 비교적 적응적이고 긍정적인 심리적 특성을 나타내는데 비해, 내현적 자기애집단은 부적응적이고 부정적인 심리적 특성을 나타낸다.

병리적 자기애의 하위유형은 주로 외현적·내현적 자기애라는 용어를 사용해 구분되고 있으나, Pincus와 Ansell(2009)은 외현적·내현적 자기애라는 표현은 마치 두 하위유형 간 차이가 병리적 자기애의 핵심적인 특징이 외부로 표현되느냐 내부에 숨어있느냐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를 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들은 또한 대안적으로 자기애적 웅대성과 자기애적 취약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며, 하위유형을 구분하기에 앞서 병리적 자기애에 존재하는 차별적인 두 가지 특징에 대해 명확히 알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Pincus와 Ansell에 따르면, 병리적 자기애는 ‘자기애적 웅대성’과 ‘자기애적 취약성’으로 구성되며 각 개념은 다음을 의미한다. 자기애적 웅대성(Narcissistic Grandiosity)은 자기 및 타인 표상의 부정적인 측면을 억압하고 실질적인 성취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도 특권의식적 태도와 과장된 자기상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성, 그리고 무한한 힘, 우월성, 완벽함, 지나친 칭찬 등 웅대성에 대한 공상을 지니는 것, 종종 대인관계적 착취 행위, 공감의 결여, 강렬한 시기, 공격성, 과시행위를 나타내는 것과 관련된다. 반면 자기애적 취약성(Narcissistic Vulnerability)은 의식적인 수준에서의 무기력감과 공허함, 낮은 자존감, 수치심, 이상적인 자기-표상이 불가능하거나 자신이 필요로 하는 감탄을 받지 못할 때 수치스러워 하는 것과 같이 자기애 관한 위협을 다루는 방법으로 사회적 철수를 하는 것과 관련된다.

(Akhtar, 2003).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기애적 웅대성은 우울 및 불안과는 부적상관을 보이는 반면 분노와는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자존감과도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다(양진원, 2012; Pincus & Ansell, 2009). 자기애적 취약성은 자기-보고된 열등감, 낮은 자존감, 수치심, 무기력감, 상대적으로 복종적인 대인관계 유형, 우울 및 분노, 불안과의 정적 상관으로 특징지어진다(양진원, 2012; Cooper & Ronningstam, 1992; Dickinson & Pincus, 2003; Gabbard, 1989; Gramzow & Tangney, 1992; Pincus et al., 2009; Rose, 2002).

병리적 자기애의 웅대성·취약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제시되고 있으나, 웅대성·취약성이라는 개념이 기존 학자들이 사용한 외현적·내현적 자기애라는 개념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모호한 편이다. Pincus와 Lukowitsky(2009)의 설명에 따르면, 자기애적 웅대성과 취약성이라는 개념은 일종의 표현형(phenotype)이고 병리적 자기애자들은 두 가지 특성을 모두 나타내기 마련이므로, 어떤 표현형을 지니고 있느냐보다 두 표현형 간의 상대적인 수준 차이가 더 중요할 수 있다. 한편 Pincus와 Lukowitsky는 병리적 자기애의 핵심은 ‘웅대성’이 아닌 ‘웅대하고 취약한 자기와 정서-상태로 이끄는 방어적 자기조절’이라 주장한다. Pincus와 Lukowitsky의 정의에 따른다면 기존에 사용되어 오던 외현적·내현적 자기애라는 용어는 병리적 자기애의 핵심을 웅대성으로 제한하고 이러한 병리적 자기애의 핵심이 외현적으로 드러나는지 내현적으로 표현되는지의 차이로 하위유형을 구분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닐 수 있다. 해외 연구에서는 단순히 자기애적 웅대성·취약성에 관한 연구들만이 수행되어 오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양진원(2012)이 Pincus와 Lukowitsky의 제안을 고려해 자기애적 웅대성·취약성 간 상대적 수준 차이에 따라 하위유형으로 구분해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그 결과, 웅대성 자기애집단은 긍정정서와 특질분노 수준이 높은 반면, 취약성 자기애집단은 부정정서와 우울, 특질분노 수준이 높아, 기존의 외현적·내현적 자기애집단과 동일하진 않지만 유사한 특징을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병리적 자기애와 자존감

자존감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자존감 척도를 개발한

Rosenberg(1965)는 자존감을 ‘매우 부정적에서 매우 긍정적인 범위에 이를 수 있는 자기에 대한 전반적이고 정서적인 평가’로 정의한 바 있다. Baumeister(1998)는 자존감이란 ‘자기평가의 긍정성’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으며, Branden(1992)은 자존감을 ‘기본적인 삶의 도전과제들을 다루고 이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정의했다. 자존감에 대한 정의가 학자마다 다양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전반적인 자기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박승진, 2008). 종합해볼 때, 자존감은 자기-개념을 확인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도 핵심적인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실제로 병리적 자기에와 자존감에 대한 연구는 매우 방대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명시적 자존감의 수준에 대한 연구결과는 상당히 많은 편이다. 하지만 그 결과는 병리적 자기에 집단은 자아상이 긍정적이거나 자존감이 높다는 연구결과(김도형, 2010; 한수정, 1999; Raskin, Novacek, Hogan, 1991a, 1992b)와 낮다는 연구결과(고은경, 2011)가 혼재되어 있는 양상을 나타낸다. 혼재된 결과가 병리적 자기에의 하위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집단으로 묶어 연구를 수행했기 때문일 수 있다는 인식 하에 하위유형을 구분해 일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그 결과, 외현적 자기에집단은 명시적 자존감이 높은 반면 내현적 자기에집단은 명시적 자존감이 낮은 특성이 일관적으로 나타났다(고은경, 2011; 김호주, 2010; 박세란, 2004). 또한 병리적 자기에의 표현형과 자존감에 대한 연구결과는 일관적으로 자기에적 웅대성은 명시적 자존감과 정적 상관, 자기에적 취약성은 명시적 자존감과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양진원, 2012; Miller et al., 2011; Pincus et al., 2009; Tritt et al., 2010).

과거의 자존감 연구가 주로 자존감 수준에 초점을 두었다면 최근에는 자존감 수준보다 자존감 안정성이 정신병리와 더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장재원, 신희천; 2009). 병리적 자기에 역시 자존감 수준보다 자존감의 변동 및 불안정성이 핵심적인 특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Ronningstam, 2005a, 2005b), 연구결과를 통해 자기에의 특징이 ‘높은 자존감’이라기보다는 ‘불안정한 자존감’(Westen, 1990)일 수 있다는 사실이 지지되고 있다(최정인, 2009; Rhodewalt, Madrian, & Cheney, 1998; Zeigler-Hill, Clark, & Myers, 2010). 예를 들어, Rhodewalt 등(1998)은 5-6일 가량 자신의 기분, 자존감, 일상의 경험에 대해 일일 보고를 한 결과, 자기에자들은 긍정적 기분의 변동성(variability)과 기분 강

도가 더 크고 자존감 불안정성 또한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정적 대인 관계 사건에 따라 자존감 불안정성이 증가했고 긍정적 사건을 경험할 때는 자존감 불안정성이 감소하는 경향성을 나타냈다. Zeigler-Hill 등(2010)의 연구에서는 일상의 성취 및 사회적 사건에 대한 반응성을 측정해보았다. 그 결과, 자기에자들은 부정적 성취 사건에 대해 상태 자존감이 더 크게 감소하는 경향성을 나타냈다. 국내에서는 병리적 자기에자를 대상으로 한 자존감 불안정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최정인(2009)의 연구 결과, 5일 간의 일일보고에서 자기에집단, 그 중에서도 특히 내현적 자기에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자존감 불안정성이 높은 경향이 나타나, 자기에와 자존감 불안정성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를 제공했다.

병리적 자기에집단의 명시적 자존감에 대한 연구결과가 방대하긴 하지만, 병리적 자기에자들은 근본적으로 방어적(masked)이라는 설명(Akhtar & Thomson, 1982; Morf & Rhodewalt, 2001; Tracy & Robins, 2003) 하에 명시적 자존감보다 조금 더 미묘한 자존감 측정치를 살펴보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자기-역동 모델에 따르면, 병리적 자기에집단의 핵심적인 특징은 본래 무의식적이거나 자동적인 것으로 여겨진다(Akhtar, 2003; Kohut, 1971). 따라서 병리적 자기에자들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드러내 보이려는 동기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보고 형식의 명시적인 측정치보다 미묘한 방법을 사용해 자존감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명시적 자존감보다 미묘한 측정치로 제안된 개념이 바로 ‘암묵적 자존감’이다. Greenwald와 Banaji(1995)는 암묵적 자존감을 ‘자기관련 자극에 대해 자발적인 반응으로 이끄는 자기에 대한 자동적인 평가’라고 정의내린 바 있다. 암묵적 자존감의 이론적 기초인 정보처리에 대한 이중 과정 모델(Dual process model)에서는 인간의 정보처리과정이 의식적인 인지적 과정과 자동적이고 평가적인 경험적 과정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Epstein, 1994; Wilson, Lindsey, & Schooler, 2000), 암묵적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자동적이고 과잉-학습된 자기평가를 측정할 수 있는 미묘한 측정도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중 과정 모델에서는 암묵적 자존감이 명시적 자존감보다 더 근본적인 특성이고 더 어린 시기에 발달하긴 하지만(Bosson et al., 2003; Hetts & Pelham, 2001; Koole, et al., 2001, 문지혜, 2009에서 재인용), 특정한 상태에서 변동하기도 한다(DeHart & Pelnam, 2007)



고 설명하므로 암묵적 자존감을 상태이자 특질로서 모두 측정 가능하다. 자기에와 암묵적 자존감의 상관을 살펴본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김효주, 2010; Bosson et al., 2008; Campbell, Bosson, & Goheen, 2007; Zeigler Hill, 2006), 우선 Jordan 등(2003)은 명시적 자존감과 암묵적 자존감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상적) 자기에를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했고, Zeigler-Hill(2006)도 유사한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김효주(2010)는 병리적 자기에집단을 대상으로 외현적·내현적 자기에의 하위유형 간 명시적·암묵적 자존감 수준의 차이를 확인하는 연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외현적 자기에집단은 명시적 자존감은 높지만 암묵적 자존감은 낮는데 비해 내현적 자기에집단은 명시적 자존감은 낮지만 암묵적 자존감은 높았다. 김효주의 연구는 두 집단이 서로 다른 양상으로 불일치하는 자존감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 병리적 자기에와 귀인양식

병리적 자기에자들은 타인 참조(reference to others)의 특성이 강하다는 사실 때문에 주로 평가적 사건에 대해 어떤 귀인양식을 보이는지를 확인하는 연구가 이뤄져 왔다. 특히 병리적 자기에자들은 일반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높고 타인의 비판이나 평가에 민감하므로 긍정적 사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내부 귀인하는 반면, 부정적 사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신의 탓이 아니고 타인이나 외부 환경 탓인 것으로 책임을 돌려 외부 귀인하는 ‘자기-봉사적 귀인편향(Self-serving Attributional Bias)’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세란, 2004; Farwell & Wohlwend-Lloyd, 1998; Hartouni, 1992; Ladd, Caywelsh, Vitulli, Labbe, & Law, 1997; Rhodewalt & Morf, 1995, 1998). 그러나 외현적 자기에자들의 경우 긍정적 사건에 대해 내부귀인은 확고히 하는데 비해, 부정적 사건에 대한 외부귀인은 확고히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지적도 존재한다(박세란, 2004; Farwell & Wohlwend-Lloyd, 1999; Hartouni, 1992; Rhodewalt & Morf, 1995).

부정적 사건에 대한 외부귀인에 대한 결과가 비일관적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자기에의 하위유형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인식 하에 국내 연구에서는 병

리적 자기애의 하위유형 간 귀인양식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들이 진행돼 왔다(김진순, 2008; 박세란, 2004; 정선, 2007). 그 결과를 살펴보면, 박세란(2004)의 연구결과에서 외현적 자기애집단은 명시적 귀인양식 측정 시 성공에 대한 유의한 내부귀인을, 내현적 자기애집단은 실패에 대한 유의한 외부귀인을 나타냈다. 그러나 실험실 상황에서는 귀인양식의 차이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았다. 정선(2007)도 외현적 자기애집단과 내현적 자기애집단, 통제집단을 구분해 이들의 성공 또는 실패 피드백 이후 정서의 변화 정도와 귀인양식을 측정해보았다. 그 결과, 귀인양식에서의 차이가 집단이 아닌 피드백 유형에서만 나타나 병리적 자기애 하위유형 간의 차이나 병리적 자기애와 통제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는 데 실패했다. 마지막으로 김진순(2008)은 외현적 자기애, 내현적 자기애, 통제집단 간 성공 또는 실패 피드백에서의 정서 변화와 자존감 수준, 능력귀인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 외현적 자기애집단은 성공 피드백에 대한 능력귀인, 내현적 자기애집단은 실패 피드백에 대한 능력귀인을 유의하게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병리적 자기애 집단의 하위유형을 구분해 살펴본 귀인양식 연구는 그 수가 드물뿐더러 방어적 귀인편향을 일관적으로 검증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특히 국내 실험실 연구에서는 해외연구에서 일관적으로 지지되는 자기고양적 귀인편향이 잘 검증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그 이유는 해외연구의 대부분이 사회·성격심리학 분야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정상적 자기애를 대상으로 하는데 비해, 국내 연구는 대부분 임상심리학 분야에서 이뤄져 병리적 자기애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차이 때문일 수 있다. 또 다른 원인 중 하나는 집단주의적 문화권에 속하며 겸손을 미덕으로 여기는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으로 인해 실험자와 대면하는 실험실 상황에서는 긍정적 사건에 대해 지나치게 자신을 칭찬하거나 부정적 사건에 대해 실험자나 실험도구를 탓하기 쉽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실제로 박세란(2004)의 연구결과에서는 외현적 자기애집단이 긍정적 피드백에 대해 오히려 파트너의 공을 높게 봄으로써 외부귀인을 더 많이 하는 겸양적 귀인편향을 나타내기도 했다(박세란, 2004). 따라서 한국의 자기애자들은 보다 우회적인 방식을 택해 귀인소재 외의 다른 귀인양식 측면에서 차이를 나타낼 가능성을 염두에 둔 연구설계가 필요하다.

## 자존감과 귀인양식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Tesser(2000)는 이론, 가설 및 경험적 연구에 대한 문헌 리뷰를 통해 자존감 유지와 관련된 자기조절 변인으로 인지적 복잡성, 투사, 억압, 합리화, 자기-확증(Self-affirmation), 자기불일치 이론, 자기-의심, 자기-팽창(self-expansion), 사회적 비교, 자기봉사적 귀인편향과 같은 다양한 변인들이 존재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Tesser가 자기조절 변인 중 하나로 구분한 ‘귀인양식’은 자존감을 조절하거나 매개하는 변인으로 여겨지며, 특히 우울증 환자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부정적 사건에 대한 내적, 안정적, 전반적 귀인 양식을 일컫는 우울-유발적 귀인양식(Depressogenic attributional style; Abramson, seligman, & Teasdale, 1978)을 낮은 자존감과 연결시킨 연구가 자주 수행되어 왔다(박화영, 2010; 최미례, 1997).

본 연구에서는 우울증에 대한 경험적 연구의 발견들에 기초해 병리적 자기에 집단의 낮은 명시적 자존감에 귀인양식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하고, 그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우울증 연구에서 수행된 자존감 및 귀인양식 간의 관계에 대한 리뷰하였다. 우울증 환자의 자존감과 귀인양식에 관한 연구는 우울증 또는 낮은 자존감이 부정적 사건에 대한 내부, 안정적, 전반적 귀인이 낮은 자존감과 관련된다는 결과를 지지한다. 예를 들어, 이정흠(1987)은 부정적 사건에 대한 내적이고 안정적 귀인, 긍정적 사건에 대한 내적이고 불안정적이며 구체적인 귀인이 자존감과 유의한 상관을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Haugen 등(2002)도 긍정적 사건에 대한 내부, 안정적, 전반적 귀인이 전반적 자존감 및 학업 성취 자존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반면, 부정적 사건에 대한 내부 및 전반적 귀인은 전반적 자존감 및 학업성취 자존감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처럼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특정영역에서의 실패를 과잉일반화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Brockner & Guare, 1983; Tennen & Herzberger, 1987). 선행연구 결과는 귀인 소재 외의 다른 귀인양식, 그 중에서도 특히 전반적 귀인양식이 자존감과 부적 상관을 보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제로 우울증을 대상으로 진행된 많은 연구결과들이 내부 귀인뿐 아니라 안정적, 전반적

귀인 또한 자존감 저하와 관련된다는 사실을 보여줬다(Brewin & Furnham, 1986; Pillow, West, & Reich, 1991; Tennen & Herzberger, 1987; Tennen, Herzberger, & Nelson, 1987).

우울증 연구에서는 자존감 또는 귀인양식 중 한 변인을 우울의 매개 또는 조절변인으로 검증하는 연구들도 수행되어왔다(최미례, 1997; Metalsky et al., 1993; Robinson et al., 1995). 그 결과 Metalsky 등(1993)은 귀인양식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존감의 조절효과 검증에 성공했다. 그러나 유사한 연구를 수행한 Robinson 등(1995)의 연구에서는 자존감의 조절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최미례(1997)가 자존감이 스트레스와 우울 사이를 매개 또는 중재하는지 확인하는 데는 성공한 반면, 자존감이 귀인양식과 우울 사이를 매개한다는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는 실패했다. 박화영(2010)은 자존감과 귀인양식이 우울에 상호작용의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존감이 낮으면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사건에 대한 전반적으로 귀인하는 사람들이 더 우울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처럼 자존감과 귀인양식 간 관계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 오고 있으나 그 결과가 비일관적이고 매개 및 조절효과가 잘 지지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한계점과 병리적 자기애집단의 특징을 고려해 자존감과 귀인양식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병리적 자기애’의 개념은 웅대한 환상, 타인에 대한 공감의 부족, 지나친 인정과 칭찬에 대한 욕구로 대표되는 ‘자기애적 웅대성’과 관련된 특징만을 강조하던 기존의 흐름에서 벗어나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자기조절불능(self-dysregulation)과 관련된 ‘자기애적 취약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병리적 자기애에 대한 연구도 자기애적 취약성과 자기애적 웅대성 모두를 아우를 필요가 있으나, 아직까지 병리적 자기애의 하위유형이나 표현형을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물다. 본 연구는 병리적 자기애의 핵심적인 두 가지 특징인 자기애적 웅대성·취약성을 고루 살펴볼 수 있는 새로운 측정도구인 병리적 자기애척도(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 PNI)를 사용해 자기애적 표현형과 심리적 변인 간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자기애적 표현형의 상대적 수준 차이에 따라 병리적 자기애를 두 가지 하위유형을 구분해 집단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확인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병리적 자기애 하위유형 구분에 병리적 자기애 척도(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 PNI)를 사용하는 또 다른 이유는, 기존의 하위유형은 연구나 연구자에 따라 사용 척도 및 집단 구분 방법이 다양해 동일 집단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는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했으므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기존의 하위유형 구분 기준은 내현적 자기애집단은 전반적 병리적 자기애 점수와 내현적 자기애 점수가 모두 높은 집단으로 규정하는 반면, 외현적 자기애집단은 전반적 병리적 자기애 점수만 높은 집단으로 규정함으로써 내현적 자기애 집단이 외현적 자기애 집단에 비해 이미 부적응적인 특징을 많이 가지고 집단일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PNI는 기존 집단 분류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있어 적합한 도구일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초점은 병리적 자기애와 자존감 및 귀인양식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현재까지 병리적 자기애와 자존감 및 귀인양식 간의 관계를 개별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존재하지만, 변인들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해 연구 I에서는 병리적 자기애의 표현형과 자존감 및 귀인양식 간의 상관을 살펴봄으로써 각각의 개념이 어떤 관계를 지니는지 확인하

고자 한다. 또한 자기애적 표현형의 상대적인 수준 차이에 따라 하위유형을 구분한 후 표현형 차원에서 나타난 특징이 실제적인 심리적 특성으로도 나타나는지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내현적·외현적 자기애의 하위유형 구분과 취약성·웅대성 자기애의 하위유형 구분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병리적 자기애와 자존감, 귀인양식 간의 관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연구 I에서는 자기애적 표현형 중 자존감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이는 자기애적 취약성(Miller et al., 2010; Pincus et al., 2009)이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을 귀인양식이 매개하는지도 검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애적 취약성이 높을수록 부정적 사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귀인하는 특성이 강해짐에 따라 자존감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한다. 여러 귀인양식 중 특히 귀인 전반성이 자존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는 이유는 선행연구에서 내현적 자기애집단이 부정적인 결과나 피드백을 일반화하거나 전반적으로 귀인하는 경향성이 강하다는 사실이 시사되어 왔기 때문이다(박세란, 2004; 최정인, 2009). 또한 병리적 자기애집단의 귀인 소재에만 관심을 둔 연구결과는 내현적 자기애집단이 부정적 사건에 대해 외부귀인을 많이 하는 방어적 귀인편향(Defensive attributional bias)을 통해 부정적 사건의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더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사건 이후 우울, 분노, 불안 등의 부정 정서가 증가하거나 자존감이 낮아지는 등 부정적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이는 변화가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모순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내현적 자기애집단이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 부정적 결과를 외부 귀인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만 부정적 피드백을 전반적인 문제인 것으로 과잉 일반화함으로써 부정적 피드백의 결과를 확대시키는 방식으로 귀인하기 때문일 수 있다. 본 연구는 가설과 선행연구결과에 기초해, 귀인 전반성이 병리적 자기애자들에게 더 핵심적인 귀인양식일 수 있다고 가정하고 그 가설을 확인하고자 한다. 한편 우울증 연구에서 자존감과 귀인양식 간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가 혼재돼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방향 설정이 잘못 되어서일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 자존감이 아닌 귀인양식을 매개 또는 조절변인으로 하는 모델이 보다 적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연구 I에서는 자기애적 취약성을 독립변인, 자존감을 종속변인, 귀인양식(귀인 전반성)을 매개변인으로 하는 매개효과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연구 II에서는 연구 I에서 검증된 결과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실제적인 부정적 피드백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병리적 자기애집단이 명시적 자존감 뿐 아니라 암묵적 자존감에서도 변동을 보이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연구 II에서는 두 병리적 자기애집단 모두 암묵적 자존감이 낮고, 부정적 피드백 이후 크게 변동하는데 비해, 하위유형 간의 전반적 귀인양식의 정도가 다르므로 명시적 자존감에서는 하위유형 간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한다. 즉 취약성 자기애집단은 부정적 사건을 보다 전반적인 것으로 귀인해 다른 집단에 비해 자존감이 유의하게 많이 감소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웅대성 자기애집단은 부정적 사건을 구체적인 것으로 귀인함으로써 명시적 자존감이 크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

연구 II의 암묵적 자존감 측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암묵적 연합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 IAT; Greenwald & Banaji, 1998)를 사용했다. 암묵적 자존감 측정에는 흔히 IAT와 이름철자 및 생일숫자 선호 검사(Initials and Birthday Preference Test, IBPT; Nuttin, 1985, 1987)가 사용된다. 이 중 본 연구에서 암묵적 자존감의 측정치로 IAT를 사용한 이유는 IBPT는 오랫동안 생각하게 할 경우 자신의 이름철자나 생일 숫자에 대한 선호가 낮아지므로(Koole, Dijksterhuis, & Knippenberg, 2001) 암묵적 자존감 변동 폭을 측정하기 위해 두 번에 걸쳐 제시해야 하는 본 연구 절차에 적합하지 않은 도구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 연구 I . 병리적 자기애의 명시적 자존감과 귀인양식의 관계

연구 I에서는 병리적 자기애의 표현형인 자기애적 취약성, 자기애적 웅대성과 자존감, 자존감 안정성 및 귀인양식 간의 관계에 대해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자기애적 웅대성·취약성과 자존감, 귀인양식 간의 상관을 살펴보고, 두 번째로 웅대성 자기애, 취약성 자기애, 통제집단 간 자존감, 귀인양식 간 차이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병리적 자기애와 자존감 사이에 귀인양식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상관분석에서는 구체적으로 자기애적 취약성이 높을수록 자존감 수준과 자존감 안정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자기애적 웅대성이 높을수록 자존감 수준은 높지만 안정성은 낮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자기애적 취약성만이 부정적 사건에 대한 안정적 및 전반적 귀인과 정적 상관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자기애적 취약성과 자기애적 웅대성이 자존감과 귀인양식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취약성 자기애집단과 웅대성 자기애집단 간 자존감 수준 및 귀인양식의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자기애적 표현형의 상대적인 수준 차이에 따라 병리적 자기애의 하위유형을 구분하고 집단 간 자존감과 인지적 특성으로서의 귀인양식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자기애적 취약성이 자존감과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경로에 귀인소재가 아닌 다른 귀인양식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증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자기애적 취약성이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귀인양식만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귀인 전반성은 자기애적 취약성과 자존감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연구1의 가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1. 병리적 자기애의 표현형은 자존감 및 자존감 안정성과 관련될 것이다.

1-1. 자기애적 취약성이 높을수록 자존감은 낮고, 자존감 안정성도



낮을 것이다.

1-2. 자기애적 웅대성이 높을수록 자존감과 높지만, 자존감 안정성은 낮을 것이다.

가설2. 병리적 자기애의 표현형 중 자기애적 취약성이 높을수록 부정적 사건에 대한 외부, 안정적, 전반적 귀인을 더 많이 할 것이다.

가설3. 취약성 자기애집단, 웅대성 자기애집단, 통제집단 간 자존감, 자존감 안정성이 서로 다를 것이다.

3-1. 취약성 자기애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해 자존감이 낮고, 자존감 안정성도 낮을 것이다.

3-2. 웅대성 자기애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해 자존감은 높지만, 자존감 안정성은 낮을 것이다.

가설4. 취약성 자기애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 외부, 안정적, 전반적 귀인을 더 많이 할 것이다.

가설5. 자기애적 취약성이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 사건에 대한 귀인 전반성이 부분적으로 매개할 것이다.

가설5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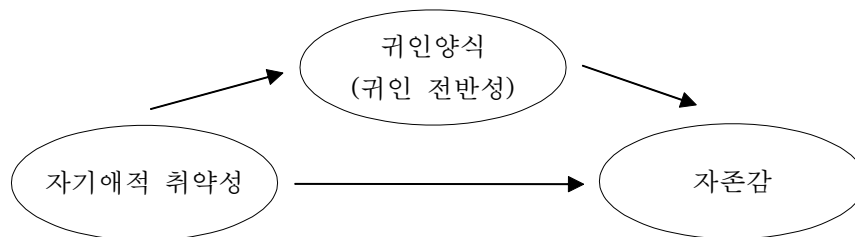


그림 1. 자기애적 취약성-자존감에 대한 귀인양식의 매개효과

## 방 법

### 참가자

서울 소재 한 대학교의 심리학 교양 과목 수강생 213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 후 설문지 작성을 완료할 때까지 연구자가 자리를 지켰으며 추후 연구 결과가 궁금한 학생들에게는 연구 결과에 대해 이메일을 통해 설명을 제공하였다. 설문지 응답에는 10~15분이 소요되었다. 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22.656세( $SD=2.98$ , 범위 18~32)였고, 이 중 남성이 140명, 여성이 73명이었다. 결측치를 포함한 자료를 제외하고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199부였다.

### 측정 도구

**병리적 자기에 척도(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 PNI).** 병리적 자기를 측정하기 위해 Pincus 등(2009)이 개발한 척도로, 본 연구에서는 양진원(2012)이 번안, 타당화한 한국판을 사용했다. 원 척도는 상위 두 가지 요인인 ‘자기애적 취약성’과 ‘자기애적 웅대성’으로 구분되며, 각 요인이 각각 4개,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된다. 이 중 ‘자기애적 취약성’에 속하는 네 가지 요인으로는 ‘변동하는 자존감(Contingent Self-esteem; CSE)’, ‘특권분노(Entitlement Rage; ER)’, ‘자기 숨김(Hiding self; HS)’, ‘평가절하(Devaluing; DV)’가 있고, ‘자기애적 웅대성’에는 ‘착취(Exploitativeness; EXP)’, ‘웅대한 환상(Grandiose Fantasy, GF)’, ‘자기희생(Self-Sacrificing-Self-Enhancement; SSSE)’이 포함되어 총 52문항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한국판으로 타당화하는 과정에서 자기애적 취약성의 하위요인 중 하나인 ‘자기 숨김(HS)’이 삭제되고 몇 가지 문항이 제거되어, 한국판 병리적 자기에 척도는 총 35문항, 6요인으로 구성된다. 양진원(2012)이 보고한 전체 문항의 내적합치도는 .92, 자기애적 취약성과 자기애적 웅대성의 내적합치도 역시 .85, .92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4주 간격으로 실시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3이었다.

**Rosenberg 자존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S).**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가 개발한 척도로, 본 연구에서는 원호택, 이훈진(1995)이 한국어로 번안한 한국판을 사용하였다. RSES는 전반적 자존감 평정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매우 신뢰롭고 타당도가 높은 척도로, 단일 요인의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점에서 5점에 이르는 5점 리커트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서수균, 권석만(2002)이 보고한 내적합치도는 .88-.90이다.

**자존감 안정성 척도(Self-esteem Stability Scale).** 이전에 자존감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자존감 척도를 여러 날에 거쳐 반복적으로 측정하던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단일 척도를 통해 자존감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장재원, 신희천(2009)이 개발한 척도다.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가 확립되었으며, 요인분석 결과 단일 요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재원, 신희천(2009)이 보고한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92였으며, 1주일 후 실시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2로 나타났다.

**귀인양식 질문지(Attributional Style Questionnaire).** 귀인소재(내부-외부), 귀인 안정성(안정적-불안정적), 귀인 전반성(전반적-구체적)의 세 가지 귀인양식을 확인하기 위해 Peterson(1982)이 제작한 것을 이영호(1993)가 번안하고 이훈진(1997)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했다. ASQ는 여섯 개의 부정적 사건과 여섯 개의 긍정적 사건을 포함해 총 12개의 시나리오로 구성된다. 피험자는 각각의 사건에 대해 상상한 후 각 사건이 발생하게 된 주요한 원인을 하나 적고 이 원인의 소재(내부/외부), 안정성, 전반성에 대해 각각 1점에서 7점에 이르는 7점 척도 상에서 평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사건의 원인을 내부, 안정적, 전반적으로 귀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초점은 부정적 사건이었으므로 12개의 시나리오 중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여섯 개의 시나리오만 추출해 사용했다.

## 집단구분

병리적 자기애의 하위유형의 구분은 선행연구(양진원, 2012)를 참고하되, 표본의 차이로 인해 하위유형 구분 기준을 수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병리적 자기애 척도의 자기애적 취약성과 자기애적 웅대성의 상대적인 수준 차이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PNI의 총점이 상위 33%인 집단을 ‘병리적 자기애’ 집단으로 분류하기로 해 총 66명을 선발했다. 선행연구에서는 병리적 자기애의 하위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자기애적 취약성 점수에서 자기애적 웅대성 점수를 빼 값을 기준으로, 이 점수가 상위 20%인 사람을 ‘취약성 자기애집단’, 하위 20%인 사람을 ‘웅대성 자기애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샘플 수의 차이로 인해 한 집단의 수가 지나치게 적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하위유형 구분의 기준을 상위·하위 20%에서 50% 기준으로 하향조정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취약성 자기애집단에 33명, 웅대성 자기애집단에 33명이 선발되었다. 또한 두 자기애 하위유형과 비교하기 위해 PNI 총점이 하위 33%인 속하는 66명을 선발해 이들을 통제집단으로 분류하였다.

## 통계적 분석

SPSS 18.0 한국판을 사용해 통계 분석을 실시했다. 자기애적 취약성과 자기애적 웅대성과 자존감, 자존감 안정성, 귀인양식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이변량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병리적 자기애의 두 하위유형인 취약성 자기애집단과 웅대성 자기애집단, 통제집단 간의 자존감, 자존감 안정성 및 귀인양식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 간 분석 시 사후분석 방법으로는 Scheffé의 사후검증 방법을 선택했다.

매개효과는 회귀분석을 통해 실시했다. 부분매개효과는 Cohen과 Cohen(1983)의 제안에 따라 분석했다. 우선 독립변인(자기애적 취약성)이 종속변인(자존감 및 자존감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지 확인하고, 둘째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귀인양식)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지 확인했으며, 셋째로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지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함께 투입했을 때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지를 확인했다. 첫 번째 단계와 마지막 단계에서의 독립변인(자기애적 취약성)의 베타 값을 비교함으로써 귀인양식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여부와 함께 매개효과가 완전매개인지 부분매개인지를 확인했다. 분석이 끝난 이후에는 매개효과 검증 결과를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sobel-test를 실시하였다.

## 결 과

연구 I의 분석에 사용된 참가자 199명의 각 심리측정치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표 1).

표 1. 연구 I의 분석에 사용된 심리측정치의 기술통계량 (N=199)

	평균	표준편차
<b>PNI (병리적 자기애)</b>		
자기애적 취약성	45.89	17.274
자기애적 웅대성	40.73	11.019
총점	86.62	25.079
<b>RSES (자존감)</b>	33.2381	6.41846
<b>SSS (자존감 안정성)</b>	21.9429	7.29531
<b>ASQ (귀인양식)</b>		
귀인소재	28.6683	4.86837
귀인안정성	23.6490	5.41129
귀인 전반성	24.5481	6.34648

주, PNI = 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 RSES = Rosenberg Self-Esteem Scale, SSS = Self-Esteem Stability Scale, ASQ = Attributional Style Questionnaire.

### 병리적 자기애의 표현형과 자존감, 자존감 안정성 및 귀인양식의 상관관계

병리적 자기애의 표현형인 자기애적 취약성, 자기애적 웅대성이 자존감, 자존감 안정성, 귀인양식과 상관관계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변량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병리적 자기애와 자존감, 자존감 안정성 및 귀인양식 간 상관행렬표

	1	2	3	4	6	7	8
1. 취약성	1						
2. 웅대성	.549**	1					
3. RSES	-.355**	.146*	1				
4. SSS	-.639**	-.220**	.541**	1			
6. 귀인소재	.030	.004	-.254**	-.202**	1		
7. 귀인안정성	.195**	.107	-.231**	-.291**	.131	1	
8. 귀인 전반성	.166*	.120	-.198**	-.281**	.325**	.489**	1

주, RSES = Rosenberg Self-Esteem Scale, SSS = Self-esteem Stability Scale.

\* $p < .05$ , \*\* $p < .01$ .

병리적 자기애의 표현형 중 하나인 자기애적 취약성은 로젠버그 자존감( $r = -.355$ ,  $p < .01$ ), 자존감 안정성( $r = -.639$ ,  $p < .01$ )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자기애적 취약성이 전반적인 자존감 수준 및 자존감 안정성과 관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자기애적 웅대성은 로젠버그 자존감( $r = .146$ ,  $p < .05$ ), 자존감 안정성( $r = -.220$ ,  $p < .01$ )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따라서 자기애적 웅대성이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지만 자존감 안정성은 낮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병리적 자기애의 표현형과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세 가지 귀인양식 간 상관분석 결과, 자기애적 취약성은 귀인소재와는 상관이 없었으나( $r = .030$ ), 귀인안정성( $r = .195$ ,  $p < .01$ ), 귀인 전반성( $r = .166$ ,  $p < .05$ )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반면 자기애적 웅대성은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귀인소재( $r = .004$ ), 귀인안정성( $r = .107$ ), 귀인 전반성( $r = .120$ ) 모두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웅대성 자기애, 취약성 자기애, 통제집단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집단 간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집단에 따른 연령이나 성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카이검정을 실시했다. 취약성 자기애집단은 33명(남 24명, 여 9명), 웅대성 자기애집단은 33명(남 25명, 여 8명), 통제집단은 66명(남 46명, 여 20명)

명)이었다. 집단 간 성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x^2(2, N=132)=.64$ ). 피험자의 평균연령은 22.656세였고,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x^2(2, N=132)=.362$ ).

### 병리적 자기애의 하위유형에 따른 자존감, 자존감 안정성의 차이

집단 간 분석에 앞서 집단 구분이 의도한대로 잘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병리적 자기애 척도의 자기애적 취약성 총점, 자기애적 웅대성 총점, 병리적 자기애 총점의 차이를 살펴보았다(표 3).

표 3. 집단 간 자기애적 표현형 및 병리적 자기애 총점 ( $N=132$ )

	PNI 고		PNI 저	<i>F</i>	대비검정
	취약성 자기애집단 ( $N=33$ )	웅대성 자기애집단 ( $N=33$ )	통제집단 ( $N=66$ )		
PNI					
취약성	69.21(8.63)	56.85(7.18)	27.52(9.96)	271.64***	취약성>웅대성>통제
웅대성	47.70(7.01)	53.21(4.60)	30.64(9.35)	109.42***	웅대성>취약성>통제
총점	116.90(14.13)	110.06(9.53)	58.15(15.11)	271.98***	취약성=웅대성>통제

주, PNI = 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

\*\*\* $p<.001$ .

병리적 자기애의 총점의 집단 간 차이는  $F(2, 129)=271.98$ ,  $p<.001$ 로 유의했으나, 사후검증 결과 병리적 자기애 집단의 하위유형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고 병리적 자기애 집단과 통제집단 간 차이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연구자의 의도대로 잘 구분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세 집단의 자기애적 취약성, 자기애적 웅대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자기애적 취약성의 경우  $F(2, 129)=271.64$ ,  $p<.001$ 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했으며 Scheffé 사후검증 결과 취약성 자기애집단, 웅대성 자기애집단, 통제집단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집단 간 자기애적 취약성의 상대적인 수준 차이 또한 잘 구분된 것으로 보인다. 자기애적 웅대성 역시  $F(2,$

129)=109.42,  $p<.001$ 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했고 웅대성 자기애집단, 취약성 자기애집단, 통제집단 순으로 자기애적 웅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집단 구분이 잘 이뤄져 집단 간 비교를 실시하기 적합한 것으로 판단됐다.

세 집단 간 명시적 자존감의 수준 및 자존감 안정성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를 포함한 기술통계량과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한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를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4. 집단 간 자존감, 자존감 안정성의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PNI 고		PNI 저	<i>F</i>	대비검증
	취약성 자기애집단 ( <i>N</i> =33)	웅대성 자기애집단 ( <i>N</i> =33)	통제집단 ( <i>N</i> =66)		
자존감(RSES)	30.33(4.29)	33.94(6.78)	34.38(6.37)	5.22**	통제=웅대성>취약성
자존감 안정성 (SSS)	16.21(6.26)	20.73(6.76)	26.11(6.47)	26.79***	통제>웅대성>취약성

주, RSES = Rosenberg Self-Esteem Scale. SSS=Self-esteem Stability Scale.

\*\* $p<.01$ , \*\*\* $p<.001$ .

첫 번째로 Rosenberg 자존감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F(2, 129)=5.22$ ,  $p=.007$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집단에서 차이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해본 결과, 취약성 자기애집단이 웅대성 자기애집단과 통제집단에 비해 RSES로 측정한 자존감 수준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두 번째로 자존감 안정성 수준을 살펴본 결과  $F(2, 129)=26.79$ ,  $p<.001$ 로 나타나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에서 자존감 수준의 차이가 나타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Scheffé 사후분석을 확인한 결과, 세 집단 간 비교 모두에서 유의한 평균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자존감 안정성 점수는 통제집단, 웅대성 자기애집단, 취약성 자기애집단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병리적 자기애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자존감 안정성 수준이 낮고, 취약성 자기애집단이 웅대성 자기애집단에 비해 자존감이 더 불안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병리적 자기애의 하위유형에 따른 귀인양식의 차이

병리적 자기애집단과 통제집단의 세 가지 귀인양식인 귀인소재, 귀인안정성, 귀인 전반성의 집단 간 평균 차이를 검정했다. 세 가지 귀인양식의 기술통계량과 변량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집단 간 부정적 사건에 대한 귀인양식의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PNI 고		PNI 저	<i>F</i>	대비검증
	취약성 자기애집단 ( <i>N</i> =33)	웅대성 자기애집단 ( <i>N</i> =33)	통제집단 ( <i>N</i> =66)		
ASQ					
귀인소재	29.64(4.66)	27.33(5.03)	28.62(4.60)	1.975	취약성=통제=웅대성
귀인 안정성	25.30(5.64)	23.70(4.85)	22.92(5.56)	2.125	취약성=웅대성=통제
귀인 전반성	27.90(6.08)	22.58(5.07)	23.89(6.65)	6.995**	취약성>통제=웅대성

주, ASQ = Attributional Style Questionnaire.

\*\**p*<.01.

귀인양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귀인 전반성만이  $F(2, 107)=6.441$ ,  $p=.002$ 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나머지 귀인소재와 귀인안정성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난 귀인 전반성에 대해 어떤 집단 간 평균 차이가 발생했는지 확인해보기 위한 Scheffé 사후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귀인 전반성은 취약성 자기애집단과 웅대성 자기애집단, 그리고 취약성 자기애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에서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취약성 자기애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귀인하는 경향성이 강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취약성 자기애집단은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 웅대성 자기애집단이나 통제집단에 비해 더 자기 탓이라 여기거나 더 안정적으

로 귀인하지는 않지만, 보다 전반적인 것으로 귀인한다고 볼 수 있다.

### 부정적 사건에 대한 귀인 전반성의 부분매개효과 검증

부분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Cohen과 Cohen(1983)이 제안한 방법을 사용했으며, 매개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귀인전반성의 부분매개효과 검증

예측변인 (X)	매개변인 (M)	결과변인 (Y)	분석	경로	수정된 $R^2$	베타	$t$
자기애적 취약성	귀인 전반성	자존감	1	X→Y	.121	-.355	-5.404***
			2	X→M	.023	.166	2.383*
			3	M→Y	.034	-.198	-2.875**
					.126		
			4	X→Y (M 포함)		-.147	-2.190*
						-.313	-4.657***

\* $p<.05$ , \*\* $p<.01$ , \*\*\* $p<.001$ .

독립변인(자기애적 취약성)과 종속변인(자존감) 간의 상관성이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이 회귀모형의 수정된  $R^2$ 은 .121로 나타나, 자기애적 취약성이 자존감의 12.1%를 설명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자기애적 취약성의  $\beta$ =-.355로 나타났으며,  $t(198)=-5.404$ ,  $p<.001$ 로 나타나 자기애적 취약성이 높을수록 자존감이 낮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자기애적 취약성’을 독립변인, 매개변인으로 가정한 ‘귀인 전반성’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모형을 검증해보았다. 그 결과 회귀모형의 수정된  $R^2$ 은 .023으로 나타나 자기애적 취약성이 귀인 전반성의 2.3%를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한편 자기애적 취약성의  $\beta=.166$ 으로 나타났으며,  $t(198)=2.383$ ,  $p=.018$ 로 나타나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기애적 취약성이 높을수록 귀인 전반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 번째로 매개변인으로 가정한 ‘귀인 전반성’을 독립변인으로 할 때 이 변인이 종속변인인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한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회귀 모형의 수정된  $R^2$ 은 .034로 나타나, 귀인 전반성이 자존감의 3.4%를 설명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귀인 전반성의  $\beta=-.198$ ,  $t(198)=-2.875$ ,  $p=.004$ 로 나타나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귀인 전반성이 높을수록 자존감이 낮아진다.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로 ‘자기애적 취약성’과 ‘귀인 전반성’을 독립변인, ‘자존감’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중다회귀분석 결과에서 자기애적 취약성이 여전히 유의한지 아닌지 확인함으로써 완전매개효과가 있는지 검증할 수 있고, 만약 자기애적 취약성이 여전히 유의한 독립변인으로 나타난다면 이 중다회귀모형 내 자기애적 취약성의 베타 값과 첫 번째 단계에서 확인했던 자기애적 취약성의 베타 값을 비교해 부분매개효과를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회귀 모형의 수정된  $R^2$ 은 .126으로 나타나 자기애적 취약성과 귀인 전반성이 자존감의 12.6%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체 모형이 유의한지 살펴본 결과  $F(2, 197)=15.379$ ,  $p<.001$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독립변인이 유의한지 살펴본 결과 귀인 전반성은  $t(198)=-2.190$ ,  $p=.030$ , 자기애적 취약성은  $t(198)=-4.657$ ,  $p<.001$ 로 나타나 두 변인 모두 자존감과 유의한 상관을 지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립변인으로 가정한 ‘자기애적 취약성’이 중다회귀모형 내에서 여전히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귀인 전반성’이 ‘자기애적 취약성’과 ‘자존감’ 사이의 관계를 완전 매개한다고 볼 수는 없었다. 그러나 첫 번째 경로(독립변인→종속변인)에서  $-.355$ 였던 ‘자기애적 취약성’의 베타 값이 마지막 중다회귀모형에서는  $-.313$ 으로 감소했으므로 귀인 전반성이 자기애적 취약성과 자존감의 관계를 부분 매개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한 부분매개효과가 실제로 유의한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기 위해 sobel-test를 실시했다. 그 결과  $z(198)=-2.617$ ,  $p=.004$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정적 사건에 대한 귀인 전반성이 자기애적 취약성과 자존감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논 의

연구 I에서는 병리적 자기애의 표현형과 자존감 및 귀인양식 간의 상관을 살펴보고, 자기애적 표현형의 상대적인 수준 차이에 따라 분류된 하위유형 간에 자존감이나 귀인양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았다.

상관분석 결과 자기애적 취약성에 대한 가설은 일부, 자기애적 웅대성에 대한 가설은 모두 지지되었다.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애적 취약성’은 자존감 및 자존감 안정성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 자존감에 대한 연구가설이 모두 지지되었다. 이 결과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것으로(Miller et al., 2010; Pincus et al., 2009), 자기애적 취약성이 명시적 자존감의 수준 및 안정성과 유의하고 일관적인 부적 상관을 나타내는 변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PNI에서 가정하는 ‘자기애적 취약성’의 하위요인에 ‘변동하는 자존감(CSE)’ 항목이 포함되기 때문에 자존감 안정성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낸 것이 동어 반복에 불과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자존감에 대한 가설이 비교적 잘 지지된데 비해, 부정적인 사건의 귀인양식에 대한 가설은 안정성 및 전반성에 대한 가설은 지지되었으나 소재와 관련된 가설은 일부만 지지되었다. 즉 부정적 사건에 대한 안정적 및 전반적 귀인과 자기애적 취약성 간의 정적 상관이 확인돼 자기애적 취약성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사건을 더 안정적이고 전반적인 측면의 문제 때문인 것으로 귀인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기애적 취약성은 부정적 사건에 대한 역기능적 귀인양식과 관련되므로, 자기애적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자기애집단은 부정적 사건을 경험할 때 그 결과를 실제보다 더 부정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여러 심리적 부적응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취약성 또는 내현적 자기애집단이 불안, 우울, 분노 또는 수치심과 같은 정서적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양진원, 2012; 이준득, 2005; Pincus et al., 2009)과 관련된 문제를 더 자주 보고하는 한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집단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에서 드러나는 방어적 귀인편향(박세란, 2004)에 기초해 자기애적 취약성이 높을수록 부정적 사건을

외부귀인 함으로써 나름대로 부정적 결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노력도 함께 할 것이라 예상했으나 가설이 지지되지 않았다. 외부귀인에 대한 가설이 지지되지 않은 원인은 국내 귀인연구에서는 해외 귀인연구와 달리 부정적 사건을 외부 귀인하는 특징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집단 간 차이에 대한 논의 부분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반면 ‘자기애적 웅대성’은 명시적 자존감 수준과 정적 상관, 자존감 안정성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 관련 가설이 모두 지지되었다. 또한 자기애적 웅대성은 부정적 귀인양식과는 아무런 상관도 나타내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는 자기애적 웅대성이 강할수록 명시적 자존감 수준은 증가하지만 자존감 안정성은 낮다는 사실과 더불어, 자기애적 웅대성 자체는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귀인양식과는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기애적 웅대성은 기저의 열등감을 가리는 방어적 속성을 지닌 것으로 여겨지므로 자기애적 웅대성이 명시적 수준에서의 높은 자존감과 관련된 것도 방어적일 수 있는데, 본 연구결과는 자기애적 웅대성과 자존감 안정성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자기애적 웅대성의 방어적 속성에 대한 이론의 증거를 제공한다. 또한 심리적 적응 및 안녕에 있어 자존감 수준보다 안정성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비춰볼 때 (Kernis, 2005; Baumeister, Smart, & Boden, 1996; Zeigler-Hill, 2006), 본 연구결과는 자기애적 웅대성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긍정적 특징 중 하나인 ‘높은 자존감’이 실제로는 불안정한 근원에 기초한 것임을 보여준다.

상관분석 후 선행연구(양진원, 2012)의 기준과 본 연구 자료의 특징을 고려해 병리적 자기에 집단을 취약성 자기에집단과 웅대성 자기에집단이라는 두 하위유형으로 구분해 집단 간 특징을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자기애적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약성 자기에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명시적 자존감 수준이 모두 유의하게 낮고 세 집단 중 자존감이 가장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 가설이 모두 지지되었다. ‘웅대성 자기에집단’ 역시 통제집단에 비해 자존감이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나 자존감 안정성과 관련된 가설은 지지된 반면, 자존감 수준이 통제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지는 않아 명시적 자존감 수준에 대한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는 기존 연구들에서 가정한 ‘외현적 자기에집단’의 명시적 자존감이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는 것과는 차별적인 결과다(김효주,

2010; 박세란, 2004; 최정인, 2009). 선행연구 결과와 본 연구결과의 불일치는 집단 구분 기준의 차이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있다. 기존 연구의 외현적 자기애집단 선발에 사용된 기준을 고려해볼 때, 외현적 자기애집단이 자기애적 웅대성이 자기애적 취약성에 비해 매우 높은 집단으로 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에 비해 본 연구에서 규정한 웅대성 자기애집단은 자기애적 웅대성뿐만 아니라 자기애적 취약성의 특징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집단이므로 이런 차이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귀인양식은 선행연구결과를 참고해 취약성 자기애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부정적 사건을 보다 외부, 안정적, 전반적으로 귀인할 것이라 가설을 세웠으나, 전반적 귀인에 대한 가설만이 지지되었다. 취약성 자기애집단이 통제집단은 물론 웅대성집단에 비해서도 전반적 귀인을 더 많이 한다는 사실은 자기애적 취약성의 특징이 상대적으로 강한 병리적자기애 집단은 부정적 사건을 전반적으로 귀인함으로써 부정적인 사건이 그 상황에 한정되어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인 것으로 일반화시키는 특징을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내현적 자기애집단이 부정적 피드백을 보다 일반화해 받아들인다는 최정인(200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집단은 자기개념명료성이 낮다는 연구결과(이준득, 2005)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결과로 여겨진다. 따라서 취약성 자기애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부정적인 사건에 직면할 때 자기조절과 관련된 문제를 더 많이 나타낼 가능성이 시사된다. 그러나 귀인 전반성이 아닌 다른 두 귀인양식인 귀인 소재와 귀인 안정성에 대한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해외 사회·성격심리학 분야의 정상적 자기애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일관적으로 지지되는 ‘방어적 귀인편향’이 지지되지 못한 이유는 동양 문화 특유의 겸양적 귀인양식(박세란, 2004)에 의한 문화적 차이를 반영하는 결과일 수 있다. 또는 병리적 자기애집단의 경우 정상적 자기애집단과는 달리 자존감이나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 부정적인 영향력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인지적 방략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결과일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관분석 결과 자기애적 취약성과 정적 상관을 지닌 것으로 밝혀졌던 귀인 안정성이 집단 간 비교에서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것은 다소 의외의 결과로 여겨져, 자기애적 취약성을 통제한 후 실시한 부분상관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자기애적 웅대성이 부정적 사건에 대한 안정적 귀인과 유의하지는 않지만 부적 상관( $r=-.014$ )을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부록 9 참고). 따라서 자기애적 취약성과 관련된 부정적 사건에 대한 안정적 귀인 경향성이 자기애적 웅대성과 관련된 불안정적 귀인 경향성에 의해 상쇄돼 취약성 자기애집단에 대해서는 안정적 귀인양식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기애적 웅대성이 방어적 속성을 지녀 자기애적 취약성과 관련된 부적응적인 인지방략을 완화시키는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결과일 수 있다.

병리적 자기애와 자존감, 귀인양식 간의 관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본 후, 변인들 간의 관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매개분석을 실시했다. 본 연구에서는 병리적 자기애의 핵심적인 특징인 부정적 사건에 대한 자기조절 문제 중 하나로 ‘낮은 자존감’을 상징하고, 자기애적 취약성이 자존감과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경로에서 부정적 사건에 대한 전반적 귀인양식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을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자존감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으로 병리적 자기애의 표현형 중 자존감 수준은 물론 안정성과도 부적 상관을 나타내는 자기애적 취약성을 가정했다. 자기애적 취약성과 자존감 사이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부적 상관(양진원, 2012; Pincus et al., 2009)의 경로에서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귀인양식은 선행연구 결과에 기초해 ‘귀인 전반성’일 것이라 예측하였다. 기존의 우울 연구(최미래, 1997; Metalsky et al., 1993; Robinson et al., 1995)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을 매개변인이 아닌 종속변인, 귀인양식을 종속변인이 아닌 매개변인으로 상징했다.

분석 결과 부정적 사건에 대한 귀인 전반성이 자기애적 취약성과 자존감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져 연구가설이 지지되었다. 연구결과에 비춰볼 때 자기애적 취약성이 강할수록 명시적 자존감이 낮아지는 이유는 부분적으로 자기애적 취약성이 강할수록 부정적인 사건을 전반적으로 귀인하는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귀인전반성에 대한 본 연구결과는 취약성 자기애집단의 낮은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귀인양식은 귀인소재라기보다는 귀인 전반성일 수 있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가 된다. 즉 자기애적 취약성이 강한 사람들은 특정 영역에서 발생한 부정적인 사건을 특정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의 문제로까지 일반화시킴으로써 자존감이 낮아지는 등의 심리적 부적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이전까지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귀인양식으로 단순히 귀인소재에만 초점을 맞춰 온 선행연구에서 설명하지 못 했던 취약성 자기에집단의 낮은 자존감에 대해 보다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하며, 특히 자기에적 취약성이 강한 병리적 자기에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부적응적인 심리적 특성인 낮은 자존감이 부정적 사건에 대한 귀인 전반성에 의해 매개되므로, 귀인 전반성과 관련된 개입을 통해 부적응적 특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임상적 함의를 지닌다.



## 연구 II. 병리적 자기에 하위유형에 따른 명시적·암묵적 자존감 및 부정적 사건에 대한 귀인양식

연구 I의 결과를 통해 병리적 자기에 취약성·응대성의 상대적인 수준 차이에 따라 명시적 자존감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나며, 특히 자기에적 취약성이 강한 사람들은 명시적 자존감 수준이 낮고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자기에적 취약성이 강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 나타내는 전반적 귀인양식이 자기에적 취약성이 명시적 자존감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매개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II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연구 II에서는 연구 I의 결과를 보다 실제적인 상황에서 확인해보기 위한 실험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 I 처럼 단순히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검자가 부정적인 사건이라고 느낄만한 사건에 직면하도록 실험을 설계하였다. 둘째, 연구 II에서는 명시적 자존감뿐 아니라 암묵적 자존감에서도 병리적 자기에 하위유형에 따른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암묵적 자존감을 함께 측정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 II에서는 병리적 자기에 자존감 수준보다 더 중요한 특징으로 여겨지는 자존감의 불안정성(Baumeister, Smart, & Boden, 1996; Jordan, Spencer, Zanna, Hoshino-Browne, & Correll, 2003; Zeigler-Hill, 2006)에 초점을 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부정적 사건 전후로 자존감을 두 번 측정함으로써 자존감의 변동 폭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연구 II의 구체적인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병리적 자기에 하위유형에 따라 명시적·암묵적 자존감의 기저수준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나타낼 것이다.

1-1. 취약성 자기에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명시적 자존감과 암묵적 자존감이 모두 낮을 것이다.

1-2. 응대성 자기에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암묵적 자존감이 낮을 것이다.

가설2. 병리적 자기에 하위유형에 따라 부정적 사건 이후 명시적·암묵적 자존감의 변동 폭에서 서로 다른 특징을 나타낼 것이다.

2-1. 취약성 자기에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부정적 사건 이후 명시적 자존감과 암묵적 자존감이 모두 크게 감소할 것이다.

2-2. 웅대성 자기에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부정적 사건 이후 암묵적 자존감이 크게 감소할 것이다.

가설3. 병리적 자기에 하위유형 중 취약성 자기에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부정적 사건에 대해 보다 전반적으로 귀인하는 특징을 나타낼 것이다.

연구 II의 가설을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표 7. 연구 II의 핵심 가설

	명시적 자존감	암묵적 자존감	귀인 전반성
취약성 자기에집단	기저수준이 낮음 변동 폭이 큼	기저수준이 낮음 변동 폭이 큼	전반적 귀인
웅대성 자기에집단	기저수준이 낮지 않음 변동 폭이 작음	기저수준이 낮음 변동 폭이 큼	구체적 귀인
통제집단	기저수준이 낮지 않음 변동 폭이 작음	기저 수준이 낮지 않음 변동 폭이 작음	구체적 귀인

## 방 법

### 참가자

연구 I 에 참여한 213명의 참가자 중 참가 의사를 표명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웅대성 자기에집단, 취약성 자기에집단에 포함된 33명 중 각각 8명, 9명, 통제집단에 속하는 66명 중 12명을 선발해 총 29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했으며,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사례비를 제공하였다.

### 측정 도구

Rosenberg 자존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S). 연구 I 과 동일하다.

암묵적 연합 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 Greenwald, McGhee와 Schwartz(1998)가 개발한 검사로, 편견이나 고정관념, 암묵적 자존감 등의 암묵적 인지양식을 측정하는 검사다. IAT는 나 또는 타인이 각각 긍정적, 부정적 단어와 동일한 반응키를 공유할 때의 반응속도와 반대로 짝지어 반응키를 공유할 때의 반응속도의 차이를 통해 수검자의 암묵적 자존감을 확인한다. 한 번의 IAT는 총 100회의 연습 시행과 80회의 본 실험 시행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박승진, 2008; 김효주, 2010; De Raedt 등, 2006; Franck 등, 2007)와 Inquisite Demo 버전에 사용된 단어 자극을 고려해 단어자극을 선정했다. 우선 나와 관련된 자극으로는 ‘나’, ‘나는’, ‘나의’, ‘내가’, ‘나를’을, 너와 관련된 자극으로는 ‘너’, ‘너는’, ‘너의’, ‘네가’, ‘너를’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어 긍정적, 부정적 단어자극을 선정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참고해 각각 30개의 단어 풀(pool)을 작성한 후 ‘개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형용사’라는 기준 하에 연구자의 판단 하에 30개 단어를 15개 후보 단어 자극으로 간추렸다. 이후 임상심리전문가 6명, 상담심리전문가 1명, 심리학과 대학원생 6명을 대상으로 각 단어의 긍정성, 부정성을 평가 받아 이 중 가장 점수가 높은 5개의 단어를 최종 선발했다. 최종 선발된 긍정 단어 자극은 ‘사랑스러운’,

‘고귀한’, ‘가치 있는’, ‘훌륭한’, ‘최고의’였고, 부정 단어자극은 ‘비열한’, ‘쓸모없는’, ‘무가치한’, ‘타락한’, ‘굴욕적인’이었다.

**Raven 지능검사(Raven Intelligence Test).** 실패 경험을 조작하기 위한 과제로 Raven 지능검사를 사용하였다. 두 번의 연습 시행 후 총 여덟 번의 본 시행을 실시하였다. 앞의 네 문제는 난이도가 비교적 낮고 정답을 맞히는 경우 ‘정답’, 틀리는 경우 ‘오답’이라는 설명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였고, 후반부의 네 문제는 난이도가 비교적 높고 피험자의 응답의 정답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오답’으로 표시되도록 설정하였다. 여덟 번의 본시행이 끝난 후 수검자에게 낮은 지능지수를 동일하게 제시하였다.

**조작점검 및 귀인양식 확인.** 본 연구의 절차에 적절하게 귀인양식을 측정하기 위해 연구자가 만든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귀인소재, 귀인안정성, 귀인전반성을 각각 두 개의 질문을 통해 측정하였다.

## 실험절차

실험은 크게 네 파트로 구분되는데, (1) 1차 명시적·암묵적 자존감 측정, (2) 부정적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한 Raven 지능검사 실시, (3) 2차 명시적·암묵적 자존감 측정, (4) 조작점검 및 부정적 결과에 대한 귀인양식 측정이 그 절차다.

수검자가 실험실에 도착하면 우선 자리로 안내한 후 실험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간략히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지각적 민감성’과 ‘지능’을 측정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선 지각적 민감성을 측정하는 검사는 실시 전이나 후에 반드시 질문지(RSES)를 작성해주셔야 하고,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두 번에 걸쳐 실시될 것입니다. 지각적 민감성 검사의 경우 정확성과 속도가 중요하므로 되도록 정확하면서도 빠르게 응답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능검사는 기존 지능검사가 지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시하기 불편하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컴퓨터로 간단히 실시할 수 있는 형태의 온라인 보급형 간이 지능검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샘플이기 때문에 전체가 아닌 일부 문제만 제시되지만 신뢰도는 높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각적 민감성 검사’를 실시하고 나서 바로 ‘지능검사’가 이어집니다. ‘지능검사’가 끝나면 실험이 끝나는데, 이때 저를 불러주시면 두 번째 ‘지각적 민감성 검사’와 질문지를 작성하신 후 실험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후 질문지 형태의 RSES로 명시적 자존감을 측정해 이를 ‘명시적 자존감의 기저수준’으로, RSES에 대한 응답이 완료된 후 첫 번째 IAT를 실시해 이를 ‘암묵적 자존감의 기저수준’으로 이용했다. 1차 IAT가 종료된 후 곧바로 이어 ‘지능검사’를 실시하는데, 이 검사는 실제로는 수검자의 응답을 전혀 채점하지 않으며 고정된 피드백을 제공한다. 모든 수검자는 “당신의 지능점수는 82점으로 나타났습니다. 893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 당신의 715등으로, 상위 81%, 하위 19%의 점수를 얻으셨습니다.” 라는 동일한 부정적 피드백을 받게 된다.

이후 명시적 자존감과 암묵적 자존감의 변동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두 번째 RSES와 IAT를 실시하는데, 두 번째 측정 시기에는 RSES와 IAT 시행 순서를 수검자에 따라 무선적으로 할당함으로써 IAT를 시행하거나 RSES를 작성하면서 자존감이 변화할 가능성을 배제하고자 하였다. 또한 두 번째로 실시하는 IAT는 첫 번째에 제시된 IAT에서와 순서가 반대로 전환되어 제시되었는데, 이는 수검자가 먼저 연합된 짝에 대해 더 쉽게 반응하는 반면 그 다음에 제시되는 순서가 정반대로 변화된 짝에 덜 익숙해 반응의 정확도나 속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함이었다. 수검자마다 먼저 제시되는 IAT의 순서를 다르게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IAT를 IAT-A, IAT-B의 두 가지 버전으로 달리 제작해 수검자에 따라 A 후 B 또는 B 후 A로 순서를 달리해 제시하였다.

모든 측정이 마무리된 후, 지능검사의 피드백이 실제로 부정적으로 느껴졌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조작점검을 하고, 부정적 사건에 대해 어떤 특정한 귀인양식을 나타내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구자가 제작한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요청했다.

연구가 모두 끝난 후에는 연구의 본래 목적을 설명하고 수검자가 추가적으로 질문하는 경우 이에 답변했다.

## 통계적 분석

SPSS 18.0을 사용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해 집단 간 구분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명시적 자존감과 암묵적 자존감의 1차, 2차 시기의 측정치와 그 사이의 변동 폭에서의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명시적·암묵적 자존감 측정치의 경우 모두 한 개인 내에서 두 번에 걸쳐 측정한 값이었으므로, 일원배치 분산분석에 더해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측정시기 및 집단의 주효과 또는 측정시기\*집단 간의 상호작용이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았다.

한편 연구가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아니었으나 명시적 자존감 변동 분석에서 가설이 지지되지 않아 긍정적으로 보이려는 동기가 작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구 I 과 연구 II에서 동일한 척도(RSES)로 측정한 자존감 수준에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했다.

## 결 과

집단 간 자기애적 취약성, 웅대성 및 병리적 자기애의 총점이 의도대로 잘 구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했다. 사후분석으로는 Scheffé 방법을 사용하였다(표 8).

표 8. 집단 간 자기애적 표현형 및 병리적 자기애 총점 ( $N=29$ )

	PNI 고		PNI 저	$F$	집단 간 차이
	취약성 자기애집단 ( $N=9$ )	웅대성 자기애집단 ( $N=8$ )	통제 집단 ( $N=12$ )		
자기애적 취약성	64.22(4.06)	52.25(3.37)	28.00(8.25)	97.44***	취약성>웅대성>통제
자기애적 웅대성	43.78(6.34)	52.63(3.93)	34.75(5.34)	27.19***	웅대성>취약성>통제
PNI 총점	108(6.84)	104.88(4.76)	62.75(9.68)	112.47***	취약성=웅대성>통제

주, PNI = 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

\*\*\* $p<.001$ .

분석 결과 ‘자기애적 취약성’은 세 집단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취약성 자기애집단의 자기애적 취약성 점수가 가장 높고 웅대성 자기애집단도 통제집단에 비해 자기애적 취약성 점수가 높아, 병리적 자기애집단의 자기애적 취약성 점수는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F(2, 26)=97.44$ ,  $p<.001$ ).

자기애적 웅대성 수준도 세 집단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F(2, 26)=27.19$ ,  $p<.001$ ). 웅대성 자기애집단이 취약성 자기애집단에 비해 자기애적 웅대성 점수가 높아 두 병리적 자기애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지만, 두 병리적 자기애집단은 모두 통제집단에 비해 자기애적 웅대성 점수가 유의하게 높아 자기애 집단과 비자기애 집단 간 자기애적 웅대성 차이가 유의했다.

마지막으로 병리적 자기애의 총점을 비교해본 결과 병리적 자기애의 두 하위유

형인 취약성 자기애집단과 웅대성 자기애집단 간 병리적 자기애 총점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통제집단과는 차이를 나타냈다( $F(2, 26)=112.47, p<.001$ ).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취약성 자기애집단과 웅대성 자기애집단은 비슷한 수준의 병리적 자기애를 지녔으나 자기애적 표현형에서의 상대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두 집단으로 구분되었으며 통제집단과도 구분되는 차별적인 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취약성 자기애, 웅대성 자기애, 통제집단 간 인구통계학적 변인

집단 간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집단에 따른 연령이나 성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카이검정을 실시했다. 취약성 자기애집단은 9명(남 4명, 여 5명), 웅대성 자기애집단은 8명(남 7명, 여 1명), 통제집단은 12명(남 9명, 여 3명)이었다. 집단 간 성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chi^2(2, N=29)=.134$ ). 피험자의 평균 연령은 22.656세였고,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chi^2(2, N=29)=.402$ ).

### 명시적 자존감 수준 및 변동 폭의 차이

명시적 자존감의 수준 및 변동 폭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실패 사건 전후 두 번에 걸쳐 측정한 각각의 명시적 자존감 수준과 두 번째 시점의 자존감에서 첫 번째 시점의 자존감을 뺀 값의 총 세 가지 점수를 분석했다(표 9).

분석 결과 세 집단의 1차-2차 측정 시점에서의 명시적 자존감의 변동 폭에서 유의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취약성 자기애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명시적 자존감의 기저 수준이 낮고, 실패 사건 후 변동 폭은 더 클 것이라는 가설이 모두 지지되지 못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명시적 자존감의 기저 수준으로 측정한 1차 명시적 자존감 측정치는  $F(2, 26)=2.088, p=.144$ 로, 2차 명시적 자존감 측정치는  $F(2, 26)=1.329, p=.282$ 로, 명시적 자존감의 변동 수준을 보기 위해 살펴본 1차-2차 측정치 간 차이 값은  $F(2, 26)=.049, p=.952$ 로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명시적 자존감에 대한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PNI 고		PNI 저	<i>F</i>	대비검증
	취약성 자기애집단 ( <i>N</i> =9)	웅대성 자기애집단 ( <i>N</i> =8)	통제집단 ( <i>N</i> =12)		
1차	36.7778	37.1250	40.3333	2.10	통제=웅대성=취약성
2차	37.4444	37.6250	40.6667	1.33	통제=웅대성=취약성
차이	.6667	.5000	.3333	.05	취약성=웅대성=통제

주, PNI = 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

일원배치 분산분석에 이어 집단과 측정시기 간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집단에 따른 주효과는  $F(2, 26)=1.765$ ,  $p=.191$ 로, 측정시기에 따른 주효과는  $F(1, 27)=1.200$ ,  $p=.284$ 으로, 집단과 측정시기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F(2, 26)=.049$ ,  $p=.952$ 로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표 10. 명시적 자존감에 대한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 자승화	<i>F</i>
RSES 측정치	집단(A)	150.541	2	75.271	1.764
	S/A	42.674	26	42.674	
	측정 시기(B)	3.522	1	3.522	1.200
	AB	.287	2	.144	.049
	BS/A	76.333	26	2.936	

주, RSES = Rosenberg Self-Esteem Scale.

## 연구 I 과 연구 II 의 명시적 자존감 측정치 비교

집단에 따른 명시적 자존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결과는 연구1에서 나타났던

취약성 자기애집단과 다른 집단 간의 명시적 자존감의 차이가 반복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외의 결과였다. 연구1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적은 샘플 수 때문일 수도 있지만 병리적 자기애자들이 실험자와 대면한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보이려는 동기가 작동했기 때문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 가능성을 확인해보기 위해 취약성 자기애집단을 대상으로 연구 I 과 연구 II의 RSES 측정치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했다(표 11).

**표 11. 취약성 자기애 집단의 연구1-연구2 간 명시적 자존감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 결과**

	평균	<i>t</i>
연구1과 연구2의 1차 측정치 비교	-6.89(4.28)	-4.823***
연구1과 연구2의 2차 측정치 비교	-7.55(4.72)	-4.802***

\*\*\*  $p < .001$ .

그 결과 연구1에서의 자존감 측정치와 연구2의 1차 명시적 자존감 측정치 간 자존감 차이가  $t(8) = -4.823$ ,  $p = .001$ , 연구 2의 2차 명시적 자존감 측정치 간 자존감 차이는  $t(8) = -4.802$ ,  $p = .001$ 로 나타났다. 따라서 취약성 자기애집단이 실험자와의 대면 상황에서 명시적 자존감을 이전보다 높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 암묵적 자존감 수준 및 변동 폭의 차이

집단에 따른 암묵적 자존감 수준 및 실패 사건 후 변동 폭에서의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을 실시했다. 본 연구에서는 Greenwald 등(2003)이 제안한 수정된 IAT 계산 방법을 이용해 암묵적 자존감의 측정치를 산출했다(표 12).

표 12. IAT 계산 방법

단계	향상된 알고리즘
1	B3, B4, B6, B7 데이터 사용
2	10,000ms가 넘는 반응 제거; 300ms 미만 반응이 전체의 10% 이상인 응답자 제거
3	모든 시행 포함
4	극단치 처리 과정 없음 (2단계로 끝)
5	각 블록의 정답 반응시간의 평균 계산하기
6	B3과 B6, B4와 B7의 모든 시행에 대해 pooled SD 구하기
7	오답 반응시간을 그 블록의 평균 시간 + 600ms로 대체하기
8	변환하지 않음
9	네 개 블록 각각의 결과 값의 평균을 구하기
10	B6-B3과 B7-B4의 차이 값 구하기
11	(10단계에서 구한) 두 차이 값을 6단계에서 연합한 pooled-trials SD로 나누기
12	11단계에서 나온 두 몫(값)의 평균 구하기

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IAT의 버전이 두 가지였기 때문에 그 버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이는 IAT-A와 IAT-B가 동형검사인지 확인하기 위함이고, 만약 서로 다른 평균과 표준편차를 지녔다면 각 버전의 평균, 표준편차의 차이를 고려해 수정된 값을 사용해야 전후의 정확한 차이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선 집단에 따라 IAT 제시 순서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했으나, 그 결과는  $F(2, 26)=.249$ ,  $p=.748$ 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IAT 제시 순서에 있어 집단 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IAT 버전에 따른 측정치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1차 IAT 측정값을 대상으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했다(표 13).

표 13. IAT 버전 간 평균 차이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결과

	IAT-A	IAT-B	<i>t</i>
평균(표준편차)	-.44(.51)	-.74(.49)	1.568

주, IAT = Implicit Association Test.

그 결과 IAT 버전에 따른 암묵적 자존감의 측정치는  $t(27)=1.568$ ,  $p=.129$ 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버전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점수의 변환 없이 원자료의 측정치를 그대로 사용했다.

각 집단 간 암묵적 자존감 측정치의 기술통계량과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는 <표 13>에 제시하였다. 기술통계량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두 시점에서 측정한 IAT 값의 평균이 집단에 상관없이 모두 음수로 나타났다. 음수인 IAT 값은, ‘나-나쁜, 너-좋은’의 결합에 대한 반응속도가 ‘나-좋은, 너-나쁜’의 결합에 대한 반응속도보다 빠른 것, 다시 말해 나에 대한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양수인 경우에는 반대로 나에 대한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세 집단 모두 암묵적 자존감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통계량을 살펴본 후, 분석 결과를 확인해보았다. 세 집단 간 IAT 1차, IAT 2차, 실패 전후 IAT의 변동 폭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암묵적 자존감의 기저수준인 1차 IAT 점수는  $F(2, 26)=.940$ ,  $p=.404$ 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2차 IAT 점수 역시  $F(2, 26)=.061$ ,  $p=.941$ 로, 1차-2차 측정치 차이로 살펴보는 암묵적 자존감의 변동 폭 역시  $F(2, 26)=.303$ ,  $p=.741$ 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집단에 따른 암묵적 자존감의 기저수준 및 변동 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표 14. 암묵적 자존감에 대한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PNI 고		PNI 저	F	대비검증
	취약성 자기애집단 (N=9)	웅대성 자기애집단 (N=8)	통제집단 (N=12)		
1차	-.59(.50)	-.42(.72)	-.74(.33)	.940	웅대성=취약성=통제
2차	-.41(.49)	-.51(.46)	-.47(.72)	.061	취약성=통제=웅대성
차이	.18(.81)	-.09(.69)	.27(.68)	.303	통제=취약성=웅대성

주, PNI = 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해보기 위해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5).

표 15. 암묵적 자존감에 대한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 자승화	F
IAT 효과	집단(A)	.217	2	.108	.312
	S/A	9.026	26	.347	
	측정 시기(B)	.198	1	.198	.755
	AB	.316	2	.158	.602
	BS/A	6.833	26	.263	

주, IAT = Implicit Association Test.

집단 내 변인으로는 실패 사건 전후에 두 시점에 걸쳐 측정한 IAT 값을, 집단 간 변인으로는 집단을 투입했다. 그 결과, 집단에 따른 주효과는  $F(2, 26)=.312$ ,  $p=.734$ 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시기의 주효과도  $F(1, 27)=.755$ ,  $p=.393$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집단과 측정시기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본 결과  $F(2, 26)=.602$ ,  $p=.555$ 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따라서 암묵적 자존감에 대한 가설이 지지되지 않았다.

## 집단에 따른 귀인양식의 차이

마지막으로 부정적 사건에 대한 귀인양식에서 집단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한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귀인소재1은 ‘지능 측정 프로그램의 결과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인소재2는 ‘지능 측정 프로그램은 지능을 정확히 측정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로, 귀인전반성1은 ‘지능 측정 프로그램은 나의 전체 지능 중 어느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0-10점 척도 상에서 측정하도록 했다. 이 세 측정치는 모두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사건을 내부, 전반적으로 귀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귀인안전성1은 ‘지능 측정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실시한다면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귀인안전성2는 ‘다시 측정하면 몇 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니까?(최하점이 0점, 최고점이 100점)’라는 질문을 통해 측정하였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귀인안전성 측정치는 모두 점수가 낮을수록 부정적인 결과를 안정적으로 귀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귀인전반성2는 IAT 검사가 사실을 반응 정확성과 속도를 통해 지능을 측정하는 검사였다고 설명한 후, IAT 점수가 몇 점이나 나왔을지 예상하는 문항이었다. 역시 최하점이 0점, 최고점이 100점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실패경험인 지능검사의 결과가 피험자가 IAT검사 결과를 예측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함으로써 조금 더 미묘하게 귀인전반성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이었다. 집단 간 귀인양식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16>과 같다.

표 16. 귀인양식에 대한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취약성 자기애 ( <i>N</i> =9)	웅대성 자기애 ( <i>N</i> =8)	통제집단 ( <i>N</i> =12)	집단 간 차이
귀인소재1	3.44(1.81)	3.38(1.92)	3.88(2.32)	통제=취약성=웅대성
귀인소재2	3.33(1.73)	3.25(1.39)	3.38(2.64)	통제=취약성=웅대성
귀인전반성1	4.33(1.22)	3.75(1.58)	3.88(1.88)	취약성=통제=웅대성
귀인전반성2	73.11(14.73)	71.25(16.42)	66.50(15.75)	취약성=웅대성=통제
귀인안정성1	4.00(2.45)	4.88(2.70)	4.17(2.82)	웅대성=통제=취약성
귀인안정성2	58.38(24.17)	71.50(19.11)	65.27(20.01)	웅대성=통제=취약성

연구 II의 관심사였던 취약성 자기애집단에게서 부정적 사건을 더 전반적으로 귀인하는 특징은 나타나지 않았다(귀인전반성1은  $F(2, 26)=.318$ ,  $p=.730$ , 귀인전반성2는  $F(2, 26)=.504$ ,  $p=.610$ ). 연구의 초점이 아니었던 다른 귀인양식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으나, 귀인소재(귀인소재1은  $F(2, 26)=.179$ ,  $p=.837$ , 귀인소재2는  $F(2, 26)=.009$ ,  $p=.991$ ), 귀인안정성(귀인안정성1은  $F(2, 26)=.255$ ,  $p=.777$ , 귀인안정성2는  $F(2, 26)=.777$ ,  $p=.471$ )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집단 에 따라 부정적인 사건을 차별적으로 다르게 귀인하는 특징은 나타나지 않았다.

## 논 의

연구 II에서는 연구 I의 결과를 보다 체계화하여 병리적 자기애집단의 하위 유형 간 차이점과 공통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 II에서는 병리적 자기애집단이 통제집단과 구분되는 독특한 특징이자 병리적 자기애집단 하위유형 간의 공통적인 특징으로서의 ‘낮고 불안정한 암묵적 자존감’을 나타낼 것이라 가정함으로써, 부정적 사건 이후 두 병리적 자기애집단 모두 암묵적 자존감이 크게 변동할 것이라 예측했다. 반면, 두 병리적 자기애집단은 명시적 자존감, 귀인양식 등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심리적 측정치나 인지적 변인에서는 차이를 보일 것이라 예측했다. 종합하면 병리적 자기애집단은 하위유형과 상관없이 암묵적 자존감이 낮고 부정적 사건에 직면해 암묵적 자존감이 크게 변동하지만, 서로 다른 귀인양식을 사용하므로 명시적 자존감의 수준 및 부정적 사건 이후 변동폭에서는 서로 다른 특징을 나타낼 것이라 예상한 것이다.

그러나 가설과는 달리 연구 II에서는 명시적 자존감, 암묵적 자존감, 귀인양식에 대한 가설이 모두 지지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우선 선발한 피험자의 문제일 수 있다. 첫째로 본 연구는 실험 연구였으므로 한 집단의 피험자 수가 10명 내외로 상당히 적은 편이었다. 그러므로 집단 또는 측정시기 간 차이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험자 수가 적어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로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 ‘병리적 자기애’로 분류된 피험자들이 임상 현장의 환자군이 아닌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별된 병리적 자기애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PNI 점수가 높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다지 병리적이지 않아 통제집단과 유사한 특징을 나타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음으로는 부정적 피드백의 핵심인 지능검사 결과 자체의 문제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실패로 느끼도록 제시한 지능검사 결과에 대해 피험자들이 연구자의 의도만큼 부정적인 자극으로 느끼지 않았거나 부정적으로 여겨졌다 하더라도 자존감이 변동할 정도의 자기애적 상처(narcissistic injury)를 야기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조작점검에서는 피험자들은 대체적으로 지능검사 결과에 불만족을 표현해 그 결과를 실패 피드백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지능검사



결과 신뢰도를 낮게 평가하는 특징도 함께 나타났다. 피험자들이 모두 우수 대학의 학생들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지나치게 낮게 제시된 지능점수를 타당하지 않거나 신뢰할 만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지능검사 과제를 좌절 또는 실패경험으로 지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가정한다면, 명시적 자존감, 암묵적 자존감, 귀인양식과 관련된 각각의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로 명시적 자존감은 세 집단 모두 실패 사건 후에 변동이 없었는데 본 연구에서 명시적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Rosenberg 자존감 척도가 안정적인 자존감(Rosenberg, 1979)을 측정하기 때문에 나타난 한계일 가능성이 있다. 즉, 측정도구로 사용한 자존감 척도가 일시적이고 상태적인 자존감보다는 특질에 가까운 보다 안정적인 자존감을 측정하기 때문에 부정적 사건 이후 발생하는 즉시적이고 일시적인 자존감 변동을 잘 감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RSES가 특질적이고 안정적인 자존감을 측정했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한 명시적 자존감의 변화를 포착하지 못한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추가 분석을 통해 확인된 연구 I 과 연구 II 기간 사이에 ‘취약성 자기애집단’에게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자존감 상승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명시적 자존감에서 예상했던 예언이 지지되지 않은 이유는 사용한 척도의 한계라기보다는 병리적 자기애집단이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대인관계에 더 예민한 것으로 알려진(Besser & Priel, 2010) 취약성 자기애집단의 경우, 실험자와 직접 대면한 상황에서 자존감을 측정하고 이를 실험자가 직접 확인한다는 사실을 아는 상황에서 실제보다 자존감을 높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시사된다.

귀인양식은 연구 I 의 결과에 기초해 취약성 자기애집단이 부정적 사건을 더 전반적으로 귀인하는 양식이 나타날 것이라 예상했으나 가설이 지지되지 않았다. 이는 실패 자극으로 사용한 지능검사의 자극 특성 자체의 문제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Raven 지능검사는 앞의 도형들 간의 관계에서 규칙을 유추해 마지막 칸에 들어가기 적합한 도형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지능을 측정하는 검사인데, 이것이 수리적인 측면의 협소한 지능을 측정하는 방식이라 여겨져 전반적인 귀인을 하기 어려운 과제로 여겨졌을 가능성이 있다. Raven 지능검사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예상해 ‘IAT 검사도 지능검사였다’는 설명을

통해 부정적 피드백이 IAT 점수를 더 낮게 예측하는 데 영향을 주는지 확인함으로써 부정적 사건의 전반적 귀인을 간접적으로나마 측정해보려 했다. 그러나 이 측정치에서도 역시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미미하게나마 병리적 자기애 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약간 점수가 높은 경향성을 나타내, 오히려 이 문항이 귀인 전반성이라기보다 부정적 피드백에 따른 손상을 회복하기 위한 도구로 여겨졌을 가능성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전반적 귀인이 용이한 과제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귀인 소재, 안정성, 전반성을 구분해 질문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참가자들이 세 가지 귀인양식에 대해 거의 유사한 점수를 주는 양상을 나타내 세 가지 유형의 질문 모두를 ‘결과에 대한 신뢰도’, ‘내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하는 것으로 뭉뚱그려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연구 II에서는 병리적 자기애집단에게서 나타나는 낮은 자존감이 부정적 사건에 대한 전반적 귀인양식 때문이라는 연구 I의 결과에 기초해 귀인양식의 차이에 따라 명시적 자존감의 변동 폭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즉, 귀인양식이 전반적이면 부정적 사건 이후 자존감이 더 크게 변동하는데 비해, 구체적이면 더 적게 변동할 것이라 예언하였으나 관련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귀인함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전반적으로 귀인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그대로거나 증가하는 등 가설과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두 변인 모두에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가설을 지지할만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병리적 자기애집단의 자존감과 귀인양식에 대한 본 연구2의 가설은 완전히 기각시키기보다는 후속연구를 통해 재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다.

암묵적 자존감은 일원배치 분산분석과 반복측정 변량분석 모두에서 측정 시기나 집단의 주효과 및 집단과 측정시기 간의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두 병리적 자기애집단이 현상적인 측면에서 다른 특성들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통제집단에 비해 암묵적 자존감 수준이 낮고 부정적 사건에 대해 암묵적 자존감이 크게 변동하는 공통점을 나타낼 것이란 본 연구의 핵심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그 중 한 가지 이유는 암묵적 자존감 측정도구로 IAT를 사용할 경우 NLT나 IBPT를 사용할 때와는 달리 암묵적 자존감에 대한 가설이 지지되지 않는 선행연구 결과(김효주, 2010; 박승진, 2008)에 추측해볼 때 측정도구의 한계일 가능성이 있다. 가령, 박승진(2008)은 IBPT를 사용한 암묵적 자존감 측정을 통해 성취지향

적 우울증 환자의 암묵적 자존감이 관계지향적 우울증 환자들보다 낮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IAT로 측정한 암묵적 자존감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반복검증에 실패했다. IAT를 이용해 병리적 자기애집단의 암묵적 자존감을 측정한 김효주(2010)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병리적 자기애집단이 통제집단과 암묵적 자존감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해볼 때 IAT가 암묵적 자존감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거나 NLT나 IBPT 등의 측정도구와 IAT가 다른 개념을 측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시사된다(Bosson et al., 2000).

## 종 합 논 의

본 연구는 병리적 자기애의 표현형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적용해 자기애적 웅대성·취약성과 자존감 및 귀인양식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표현형 간 상대적 수준 차이를 통해 병리적 자기애를 자기애적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취약성 자기애집단’과 웅대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웅대성 자기애집단’으로 구분한 후, 두 집단 간 공통점 및 차이점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연구목표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는 질문지 연구와 실험 연구를 통해 명시적 자존감 및 암묵적 자존감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병리적 자기애집단이 부정적 사건을 경험할 때 명시적·암묵적 자존감 및 귀인양식에서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지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연구 I에서는 우선 병리적 자기애의 표현형과 자존감 및 귀인양식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기애적 취약성은 자존감 수준 및 자존감 안정성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부정적 사건에 대한 안정적 및 전반적 귀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따라서 자기애적 취약성이 높을수록 명시적 자존감 수준 및 안정성이 낮아 외부의 평가에 따라 자존감이 쉽게 흔들린다는 사실, 부정적 사건에 대해 보다 안정적이고 전반적으로 귀인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기애적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부적응적인 특성과 관련되는 이유는 자기애적 취약성이 병리적 자기애의 방어의 기저에 존재하는 ‘열등감’과 관련된 개념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비해 자기애적 웅대성은 자존감과는 정적 상관, 자존감 안정성과만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내 자기애적 웅대성이 높아질수록 자존감은 높아지지만 자존감이 불안정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자기애적 웅대성이 방어적 속성, 즉 병리적 자기애자들이 높은 또는 평균 수준의 자존감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실제적인 기반을 지닌 것이라기보다는 기저의 열등감을 가리기 위해 발달된 불안정한 토대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지지하는 증거일 수 있다.

두 번째로 자기애적 표현형의 상대적인 수준 차이를 고려해 병리적 자기애의 하위유형을 취약성 자기애집단과 웅대성 자기애집단으로 구분해 통제집단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취약성 자기애집단은 상관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다른 집단에 비

해 자존감이 낮고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귀인양식에 대한 집단 분석 결과는 상관 분석 결과와 달리 전반적 귀인에서만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상관 분석에서 자기애적 취약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지녔던 귀인 안정성의 특징이 집단 분석 결과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본 연구에서 규정한 취약성 자기애집단이 자기애적 웅대성을 평균 이상 보유하기 때문일 수 있다. 즉 자기애적 웅대성이 부정적 사건에 대한 비교적 불안정적 귀인 경향성과 관련되므로, 자기애적 취약성과 관련된 안정적 귀인 경향성이 상쇄된 것일 수 있다. 이에 비해 전반적 귀인은 취약성 자기애집단에서 유의하게 강하게 나타났으므로 자기애적 취약성이 강할수록 부정적 사건을 전반적으로 귀인하는 특징은 상당히 강력한 경향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자기애적 취약성과 낮은 자존감의 관계를 ‘부정적 사건에 대한 전반적 귀인’이 부분적으로 매개할 것이라는 매개모형을 검증해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결과는 자기애적 취약성이 강해질수록 부정적 사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귀인해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음을 지지하는 증거다. 또한 본 매개효과는 자기애적 취약성이 강한 사람들에게 치료적 개입을 할 때 전반적 귀인양식이라는 부적응적 인지방략에 초점을 둬으로써 자존감 상승과 같은 긍정적 치료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상적 함의를 지닌다.

연구 II는 연구 I의 결과를 실제와 유사한 상황에서 반복검증하고 암묵적 자존감을 함께 살펴보려는 목표 하에 실험연구로 설계했다. 연구 II의 주요 목표는 병리적 자기애 하위집단 간 공통점으로서의 ‘낮고 불안정한 암묵적 자존감’을, 차이점으로는 ‘명시적 자존감 수준 및 안정성’과 ‘부정적 사건에 대한 귀인양식’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연구 목표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 II에서는 명시적·암묵적 자존감 각각의 기저수준 및 부정적 사건 후 변동 수준, 부정적 사건에 대한 귀인양식에 대한 다섯 가지 가설을 세웠으나, 연구 II의 가설은 모두 지지되지 않았다.

연구가설이 지지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연구 참여자가 한 집단에 10명 내외로 적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는 부정적 피드백으로 제시한 지능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낮게 평가했거나 그 결과를 신뢰했다 하더라도 실험참가자들이 자존감이 변동할 만큼 부정적인 사건이라 인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연구 가설의 대부분이 취약성 자기애집단에 대한 것이었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실험자와 대면하는 실험 연구로 설계된 연구 II에서 취약성 자기애집단이 실제로 다 긍정적인 자기보고를 해 연구가설이 지지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는 취약성 자기애집단이 대인관계에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사실(Besser & Priel, 2010)을 통해서도 추론 가능하다. 그 가능성을 확인해보기 위해 연구 II에서는 추가적으로 연구 I 과 연구 II에서의 명시적 자존감을 비교해본 결과, 가설대로 취약성 자기애집단의 명시적 자존감 측정치에 변화가 나타나 실험자 대면 상황에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왜곡했을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그러나 명시적 자존감, 귀인양식과 같은 명시적 측정치에 비해 미묘한 방식으로 측정한 ‘암묵적 자존감’에 대한 관련 가설들도 지지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 암묵적 자존감의 측정도구로 사용한 IAT의 한계일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병리적 자기애와 자존감 및 귀인양식 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자기애적 표현형과 하위유형을 구분해 상관분석과 집단 분석을 함께 실시함으로써 병리적 자기애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었다. 병리적 자기애 척도(PNI)를 사용하지 않은 선행연구들은 측정도구의 한계로 인해 집단 간 비교 연구에 제한될 수밖에 없고, 서로 다른 척도를 사용해 집단을 분류한 경우 타당도의 문제가 있어 연구결과가 불일치하는 등의 문제를 지녔다. 본 연구는 PNI를 사용해 자기애적 표현형과 관련된 심리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자기애적 방어(자기애적 웅대성) 및 기저의 열등감(자기애적 취약성)과 관련된 자존감 및 귀인양식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자기애적 표현형의 상대적인 수준 차이에 따라 집단을 구분함으로써, 표현형 차원에서 나타난 특징이 실제 집단 내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자존감-귀인양식 간 관계를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간 자존감과 귀인양식 간의 관계를 연결시킨 연구는 대부분 우울증 연구에서 수행되어 왔으나 그 결과가 잘 지지되지 않거나 혼재되어 있는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애적 취약성을 독립변인, 귀인양식을 매개변인, 자존감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부분매개모델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가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론적으로 자존감과 귀인양식의 관계 연구에 있

어 기존 연구들이 방향 설정이 잘못 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귀인양식이 자존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한 가지 증거를 제시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자기애적 취약성이 강한 집단이 부정적 사건에 대한 전반적 귀인을 통해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지지함으로써, 자기애적 취약성이 강한 사람들에게 치료적 개입을 할 때 이들이 흔히 사용하는 인지적 방략을 재고해볼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부정적 사건에 대한 전반적 귀인은 우울과도 밀접한 상관을 보이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자존감 감소 외에도 우울감이 증가하거나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등의 부적응적 특성을 나타낼 가능성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두 병리적 자기애집단 간의 공통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를 지닌다. 그 동안 병리적 자기애의 하위유형을 구분해 수행된 연구 대부분이 두 하위유형 간 차이점을 확인하는데 집중한 나머지 두 집단을 동일한 병리적 자기애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을만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경험적 지지를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자존감 불안정성’을 두 하위유형 간 핵심적인 특징으로 가정하고 가설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 병리적 자기애의 두 하위유형 모두 불안정한 자존감의 특성을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자존감 불안정성이 병리적 자기애집단을 다른 집단과 구분해주는 핵심적인 특성일 가능성이 시사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 I을 통한 명시적 측정치에서는 자존감 불안정성이 확인되는데 비해 실험 조건의 연구 II에서는 그 결과가 반복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후속연구에서 보다 체계화해 이런 가설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암묵적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암묵적 연합검사(IAT)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IAT는 연구에서는 그 결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박승진, 2008; 김진순, 2010). 실제로 자기애에 대한 정신역동적 이론인 마스크 이론(Masked theory, Frued, 1914/53; Kernberg, 1975; Kohut, 1971; Wink, 1981)에 기초해 자기애자들이 명시적 자존감은 높으나 암묵적 자존감은 낮고, 이 조합을 통해 자기애 정도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이 설립되었다. Bosson 등(2008)이 이러한 모델에 입각한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암묵적 자존감 측정에 가장 널리 사

용되는 두 측정도구인 암묵적 연합검사(IAT), 이름철자검사(Name Letter Task, NLT; Kitayama & Karasawa, 1997; Koole, Dijksterhuis, & van Knippenberg, 2001)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낮은 암묵적 자존감 수준 또는 낮은 암묵적 자존감과 높은 명시적 자존감의 결합을 통해 자기애를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NLT를 이용한 암묵적 자존감의 경우 그 수준이 낮거나 높은 명시적 자존감과 상호작용을 통해 약하지만 유의하게 자기애를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IAT로 측정한 암묵적 자존감은 병리적 자기애에 대한 마스크 모델을 지지할만한 어떤 결과와도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암묵적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IAT가 실제로 암묵적 자존감을 측정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특히 자기애의 이론에 기초해 관찰되어야 하는 암묵적 자존감의 특성을 잘 포착해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기애의 암묵적 자존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경우 IAT 외의 다른 측정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최근 병리적 자기애 연구의 주관심사인 자기애적 취약성에 초점을 두고, 부정적 사건에 대한 반응이 병리적 자기애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이라는 판단 하에 부정적 사건에 대한 연구만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긍정적 사건에 대한 병리적 자기애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는 연구 또한 수행될 필요가 있다. 자기애적 방어와 관련된 자기애적 웅대성(Pincus et al., 2009; Wink, 1981)이 긍정적인 심리적 변인들과 관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웅대성 자기애집단은 자기애적 방어가 비교적 잘 작동해 명시적으로는 긍정적이고 적응적인 속성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으므로 긍정적 사건에 대한 반응을 함께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이처럼 긍정적 및 부정적 생활사건에 대한 병리적 자기애 하위유형 간 차별적인 반응을 살펴본다면, 병리적 자기애의 두 하위유형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병리적 자기애에 대해 폭 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집단 구분 방법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결과와 한 개인에게서 자기애적 취약성과 웅대성이 함께 나타난다는 Pincus 등(2008)의 주장 그리고 현실적인 집단 구분의 용이함을 고려해 양진원(2012)의 방법을 이용한 집단 구분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 취약성·웅대성 자기애집단이 기존의 내현적·외현적 자기애집단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특징들이 나타났다. 따라서 이후 PNI를 이용해 병리적 자기애집단 간 하위유형을 구분



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면 집단 구분 기준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가령, 두 집단 간 차이를 극대화하고자 한다면 PNI 점수 자체가 높은 것보다는 자기애적 표현형에 초점을 두고 총점 자체는 같되 자기애적 웅대성이 매우 강한 집단과 자기애적 취약성이 매우 강한 집단으로 구분해 집단 간 비교를 실시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연구 I의 상관분석 결과에서도 자기애적 웅대성이 명시적 자존감과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웅대성 자기애집단’을 기존의 외현적 자기애집단과 유사하게 자기애적 웅대성이 매우 강한 집단으로 규정하는 등 집단 분류 기준을 달리 한다면 본 연구결과와는 달리 명시적 자존감이 통제집단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규정한 웅대성 자기애집단이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규정하는 외현적 자기애집단과 다소 다른 특징을 나타내는 집단인 것으로 여겨진다. 추후 PNI를 사용해 연구를 설계하고자 할 때 연구의 초점에 따라 본 연구와는 다른 집단 구분 기준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병리적 자기애와 자존감 및 귀인양식 간 관계를 확인하고, 특히 자기애적 취약성이 강한 병리적 자기애자들의 자존감에 부정적 사건에 대한 전반적 귀인양식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함의를 지닌다. 또한 하위유형 뿐 아니라 표현형 차원에서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방식으로 병리적 자기애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는 장점을 지닌다. 선행연구들이 병리적 자기애의 하위유형을 구분하지 않거나 구분하는 경우 차이점에 초점을 둔 데 비해, 본 연구는 하위유형을 구분하면서도 하위유형 간 공통점인 ‘자존감 불안정성’과 차이점인 ‘명시적 자존감’ 및 ‘귀인양식’ 모두에 초점을 뒀다는 점에서 또한 독자적인 함의를 지닌다. 다만 실험연구 결과가 지지되지 못했으므로 암묵적 자존감 측정 및 연구방법에 대한 재고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부정적 사건에만 초점을 두었지만 긍정적 사건까지 두루 살펴보는 연구를 수행한다면, 병리적 자기애의 표현형 및 하위유형에 따른 공통점 및 차이점에 대한 체계적이고 폭넓은 이해가 가능해질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선희, 정남운 (2002). 내현적 자기에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969-990.
- 강진옥 (2009). 청소년의 내·외현적자기애와 자기개념명료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고은경 (2011). 내현적 자기애와 편집성향간의 관계: 자존감과 분노표현양식, 성격 특성을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권석만, 한수정 (2000). 자기애성 성격장애: 지나친 자기 사랑의 함정. 서울: 학지사.
- 김도형 (2010). 성격장애진단검사를 이용한 B군 성격장애들 간 증상, 자존감, 정서 및 대인관계 행동 비교. 충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방글 (2005). 통제 불능 경험이 외현적/내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방글, 오수성 (2009). 실패 경험이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8(4), 1069-1081.
- 김진순 (2008). 성공-실패 피드백에 따른 외현 및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부적정서, 자존감, 능력 귀인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효주 (2010). 자기애 성향자들의 명시적·암묵적 자존감과 공격성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문지혜 (2009). 암묵적 자존감에 대한 정서적 글쓰기의 효과.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세란 (2004). 외현적·내현적자기애의 자기평가와 귀인양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승진 (2008). 성취지향적·관계지향적 우울성향자의 암묵적·명시적 자존감.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화영 (2010). 자존감 및 귀인양식, 우울 간의 관계 : 성공·실패 경험과 부정적 귀인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백승혜, 현명호 (2008). 내현적, 외현적 자기애성향자의 적대감, 분노경험수준, 및

- 분노표현양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4), 1001-1017.
- 서수균, 권석만 (2002) 자존감 및 자기에 성향과 공격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809-826.
- 양진원 (2012). 병리적 자기에 성향자의 응대성과 취약성에 따른 정서적 특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원호택, 이훈진 (1995). 편집성 척도(Paranoia Scale)의 신뢰도,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4(1), 83-94.
- 이영호 (1993). 귀인양식, 생활사건, 사건귀인 및 무망감과 우울의 관계 : 공변량구조모형을 통한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윤희 (2012). 방임적 부모양육태도와 내현적자기애의 관계: 자기개념명료성과 정서적 단절도식의 매개효과.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정흠 (1987). 우울증의 귀인유형과 자존심의 관계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준득 (2005). 내현적·외현적 자기에 성향자의 분노특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지원, 장은영 (2011). 외현·내현적 자기에 그리고 자기고양동기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단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0(2), 441-458.
- 이훈진 (1997). 편집증과 자기개념 및 귀인양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장재원, 신희천 (2009). 자존감의 안정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3), 635-654.
- 정남운 (2001). 과민성 자기에 척도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93-216.
- 정선 (2007). 내현적·외현적 자기에 성향자의 성공·실패 경험이 귀인,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조은영 (2011). 내현적·외현적 자기에 성향자의 분노특성과 전위공격성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미례(1997). 자존감이 귀인양식과 대처방식 그리고 우울증에 미치는 효과. 성격 및 개인차 연구, 6(1), 115-128.
- 최정인(2009). 평가적 피드백에 따른 자기에 성향자의 자존감 변화 및 정서조절전략.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혜정, 장문선(2011). 외현적, 내현적 자기에 성향집단의 MMPI-2 프로파일 유형과 자아방어기제 특징. *상담학연구*, 11(2), 539-554.
- 한수정(1999). 자기에자의 자기관련 정보에 대한 지각적 민감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황순택 (1995). 전형성 평정에 의한 성격장애 진단준거 개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Abramson, L. Y., Seligman, M. E., & Teasdale, J. D. (1978). Learned helplessness in humans: Critique and reformul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7(1), 49-74.
- Akhtar, S. (2003). *New clinical realms*. London: Jason Aronson Inc.
- Akhtar, S., & Thomson, J. A. (1982).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1), 12-20.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sup>th</sup> ed. Text-Revision*. Washington, DC: Author.
- Ashby H. U., Lee, R. R., & Duke, E. H. (1979). A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MMPI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New York.
- Atlas, G. D., & Them, M. A. (2008). Narcissism and sensitivity to criticism: A preliminary investigation. *Current Psychology*, 27(1), 62-76 .
- Baumeister, R. F., Smart, L., & Boden, J. M. (1996). Relation of threatened egotism to violence and aggression: The dark side of high self-esteem. *Psychological Review*, 103(1), 5-33.
- Besser, A., & Priel, B. (2010). Grandiose narcissism versus vulnerable narcissism in threatening situations: Emotional reactions to achievement failure and interpersonal rejection.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9(8), 874-902.
- Bosson, J. K., Swann, W. B., & Pennebaker, J. W. (2000). Stalking the perfect measure of implicit self-esteem: The blind men and elephant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631-643.

- Bosson, J. K., Brown, R. P., & Zeigler-hill, V. (2003). Self-enhancement tendencies among people with high explicit self-esteem: The moderating role of implicit self-esteem. *Self and Identity*, 2, 169-187.
- Bosson, J. K., Lakey, C. E., Campbell, W. K., Zeigler-Hill, V., Jordan, C. H., & Kernis, M. H. (2008). Untangling the links between narcissism and self-esteem: A theoretical and empirical review.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3), 1415-1439.
- Branden, N. (1992). *The power of self-esteem*. Florida: Health Communications, Inc.
- Brewin, A., & Furnham, C. R. (1986). Attributional versus preattributional variables in self-esteem and depression: A comparison and test of learned helplessness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5), 1013-1020.
- Brockner, J., & Guare, J. (1983).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low self-esteem individuals: An attributional approach.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6(4), 642-656.
- Cain, N. M., Pincus, A. L., & Ansell, E. B. (2008). Narcissism at the crossroads: Phenotypic description of pathological narcissism across clinical theory, social/personality psychology, and psychiatric diagnosis. *Clinical Psychological Review* 28, 638-656.
- Campbell, W. K., Bosson, J. K., & Goheen, T. W. (2007). Do narcissists dislike themselves "deep down inside?" . *Psychological Science*, 18(3), 227-229.
- Campbell W. K., & Miller, J. D. (2011). *The handbook of narcissism and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New Jersey: John Wiley & Sons.
- Cohen, J., & Cohen, P. (1983). *Applied multiple regression/correlation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 New Jersey: Erlbaum.
- Cooper, A. M. (1988). The narcissistic-masochistic character. In R. Glick, & D. Meyers (Eds.), *Masochism: Current psychoanalytic perspective* (pp. 117-138). New Jersey: The Analytic Press.

- Cooper, A. M. (2000). Future developments in the clinical diagnosis of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In F. Elsa, & E. Ronningstam (Eds.), *Disorders of narcissism: Diagnostic, clinical and empirical implications* (pp. 53-74), London: Jason Aronson Inc.
- Cooper, A. M., & Ronningstam, E. (1992).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In A. Tasman, M. B. Riba (Eds.), *American psychiatric press review of psychiatry*, 11 (pp. 80-97),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Inc.
- DeHart, T., & Pelnam, B. W. (2007). What lies beneath: Parenting style and implicit self-esteem.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2(1), 1-17.
- Dickinson, K. A., & Pincus, A. L. (2003). Interpersonal analysis of grandiose and vulnerable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7(3), 188-207.
- Epstein, S. (1994). Integration of the cognitive and the psychodynamic unconscious. *American Psychologist*, 49(8), 709-724.
- Farwell, L., & Wohlwend-Lloyd, R. (1998). Narcissistic processes: Optimistic expectations, favorable self-evaluations, and self-enhancing attributions. *Journal of Personality*, 66(1), 65-83.
- Foster, J. D., & Trimm, R. F. (2008). On being eager and uninhibited: Narcissism and approach-avoidance motiv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Bulletin*, 34(7), 1004-1017.
- Freud, S. (1953). *On narcissism: An introduction*. London: Hogarth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14).
- Gabbard, G. O. (1998). Transference and countertransference in the treatment of narcissistic patients. in E. Ronningstam (Ed.), *Disorders of narcissism: Diagnostic, clinical, and empirical implication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Inc.
- Gabbard, G. O. (1989). Two subtypes of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Bulletin of the Menninger Clinic*, 53(6), 527-532.
- Gabbard, G. O. (2009). Transference and countertransference: Developments in the treatment of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Psychiatric Annals*, 39(3),

129-136.

- Gersten, S. P. (1991).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consists of two distinct subtype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5, 167-177.
- Gramzow, R., & Tangney, J. P. (1992). Proneness to shame and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Bulletin*, 18(3), 369-376.
- Greenwald, A. G., & Banaji, M. R. (1995). Implicit social cognition: Attitudes, self-esteem, and stereotypes. *Psychological Review*, 102(1), 4-27.
- Greenwald, A. G., McGhee, D. E., & Schwartz, L. K. (1998).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implicit cognition: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6), 1464-1480.
- Greenwald, A. G., Nosek, B. A., & Banaji, M. R. (2003). Understanding and using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I. An improved scoring algorith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2), 197-216.
- Hartouni, Z. S. (1992). Effects of narcissistic personality organization on causal attribution. *Psychological Reports*, 71, 1339-1346.
- Hetts, J. J., & Pelham, B. W. (2001). A case of non-conscious aspects of the self-concept. In G. Moscovitz (Ed.), *Cognitive social psychology: The Princeton symposium on the legacy and future of social cognition*(pp. 05-123). Mahwah, New Jersey: Erlbaum.
- Hendin, H. M., & Cheek, J. M. (1997). Assessing hypersensitive narcissism: A reexamination of Murray's narcissism scal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4), 588-599.
- Haugen, R., & Lund, T. (2002). Self-concept, attributional style and depression. *Educational Psychology*, 22, 305-315.
- Jordan, C. H., Spencer, S. J., Zanna, M. P., Hoshino-Browne, E., & Correll, J. (2003). Secure and defensive high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5), 969-978.
- Kernberg, O. F. (1998). Pathological narcissism and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Theoretical background and diagnostic classification. in

- Ronningstam, E. F. (Ed.), *Disorders of narcissism: Diagnostic, clinical, and empirical implications*(pp. 29-51).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Kernis, M. H. (2005). Measuring self-esteem in context: The importance of stability of self-esteem in psychological functioning. *Journal of Personality*, 73(6), 1569-1605.
- Kernis, M. H., Grannemann, B. D., & Barclay, L. C. (1989). Stability and level of self-esteem as predictors of anger arousal and host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6), 1013-1022.
- Kitayama, S., & Karasawa, M. (1997). Implicit self-esteem in Japan: Name letters and birthday number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3, 736-742.
- Kohut, H. (1971). 『자기의 분석』. (이재훈, 옮김). 서울: 심리치료연구소. (원서출판 1971)
- Koole, S. L., Dijksterhuis, A., & van Knippenberg, A. (2001). What's in a name: Implicit self-esteem and the automatic 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4), 669-685.
- Ladd, E. R., Caywelsh, M., Vitulli, W. F., Labbe, E. E. & Law, J. G. (1997). Narcissism and causal attribution. *Psychological Reports*, 80, 171-178.
- Masterson, M. D. (1993). *Search for the real self*. London: Routledge.
- Maxwell K., Donnellan, M. B., Hopwood, C. J., & Ackerman, R. A. (2010). Two faces of Narcissus? An empirical comparison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nd the 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0, 577-582.
- Metalsky, G. I., Joiner, T. E., Hardin, T. S. & Abramson, L. Y. (1993). Depressive reactions to failure in a naturalistic setting: A test of the hopelessness and self-esteem theories of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2(1), 101-109.
- Miller, J. D., Dir, A., Gentile, B., Wilson, L., Pryor, L. R., & Campbell, W. K.



- (2010). Searching for a vulnerable dark triad: Comparing factor 2 psychopathy, vulnerable narcissism,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personality*, 78(5), 1529-1564.
- Miller, J. D., Gaughan, E. T., Maples, J., & Price, J. (2011). A Comparison of agreeableness scores from the big five inventory and the NEO PI-R: Consequences for the study of narcissism and psychopathy. *Assessment*, 18(3), 335-339.
- Morf, C. C., & Rhodewalt, F. (2001). Expanding the dynamic self-regulatory processing model of narcissism: Research directions for the future. *Psychological Inquiry*, 12(4), 243-251.
- Oldham, J., & Morris, L. B. (1995). *The new personality self-portrait: Why you think, work, love and act the way you do*. New York: Bantam Books.
- Otway, L. J., & Vignoles, V. L. (2006). Narcissism and childhood recollections: A quantitative test of psychoanalytic predic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Bulletin*, 32(1), 104-116.
- Pillow, D. R., West, S. G., & Reich, J. W. (1991). Attributional style in relation to self-esteem and depression: Mediation and interactive model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5(1), 57-69.
- Raskin, R., & Hall, C. S. (1980).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lternative form reliability and further evidence of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5(2), 159-162.
- Pincus, A. L., Ansell, E. B., Pimentel, C. A., Cain, N. M., Wright, A. G. C., & Levy, K. N. (2009). Initial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the 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 *Psychological Assessment*, 21(3), 365-379.
- Pincus, A. L., & Lukowitsky, M. R. (2009). Pathological narcissism and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6, 421-446.
- Raskin, R., Novacek, J., & Hogan, R. (1991a). Narcissism, self-esteem, and defensive self-enhancement. *Journal of Personality*, 59(1), 19-38.
- Raskin, R., Novacek, J., & Hogan, R. (1991b). Narcissistic self-esteem

- manag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6), 911-918.
- Rathvon, N., & Holmstrom, R. W. (1996). An MMPI-2 portrait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6(1), 1-19.
- Revik, J. O. (2006). Overt and covert narcissism: Turning points and mutative elements in two psychotherapies. *British Journal of Psychotherapy*, 17(4), 435-447.
- Rhodewalt, F., & Morf, C. C. (1995). Self and interpersonal correlate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 review and new finding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9(1), 1-23.
- Rhodewalt, F., & Morf, C. C. (1998). On self-aggrandizement and anger: A temporal analysis of narcissism and affective reactions to success and fail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3), 672-685.
- Rhodewalt, F., Madrian, J. C., & Cheney, S. (1998). Narcissism, self-knowledge organization, and emotional reactivity: The effect of daily experiences on self-esteem and affec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4(1), 75-87.
- Robinson, N. S., Garber, J., & Hilsman, R. (1995). Cognition and stress: Direct and moderating effect on depressive versus externalizing symptoms during the junior high school transi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4, 453-463.
- Rose, P. (2002). The happy and unhappy faces of narciss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3(3), 379-391.
- Ronningstam, E. F. (2005a). *Identifying and understanding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Ronningstam, E. F. (2005b).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 review. In M. Maj, H. S. Akiskal, J. E. Mezzich, & A. Okasha (Eds.), *Evidence and experience in psychiatry: Volume & personality disorders*(pp. 277-327). New York: Wiley.
- Ronningstam, E. F. (2009).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s: Facing DSM-V.

- Pshchiatric Annals*, 393), 111-121.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Rosenfeld, H. (1987). *Impasse and interpretation: Therapeutic and anti-therapeutic factors in the psychoanalytic treatment of psychotic, borderline and neurotic patients*. London: Routledge.
- Serkownek, K. (1975). *Subscales for scales 5 and 9 of the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Unpublished manuscript.
- Solomon, R. S. (1982). Validity of the MMPI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scale. *Psychological Reports*, 50, 463-466.
- Tennen, H., & Herzberger, S. (1987). Depression, self-esteem, and the absence of self-protective attributional bia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1), 72-80.
- Tennen, H., Herzberger, S. & Nelson, H. F. (1987). Depressive attributional style: The role of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55(4), 631-660.
- Tesser, A. (2000). On the confluence of self-esteem maintenance mechanism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4(4), 290-299.
- Tracy, J. L., & Robins, R. W. (2003). Show your pride evidence for a discrete emotion expression. *Psychological Science*, 15(3), 194-197.
- Tritt, S. M., Ryder, A. G., Ring, A. J., & Pincus, A. L. (2010). Pathological narcissism and the depressive temperament.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22(3), 280-284.
- Westen, D. (1990). The Relations among narcissism, egocentrism, self-concept, and self-esteem: Experimental, clinical, and theoretical consideration. *Psychoanalysis and Contemporary Thought*, 13, 183-239.
- Westen, D. (1999). Revising and assessing axis II, Part I: Developing a clinically and empirically valid assessment method.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6(2), 258-272.
- Wilson, T. D., Lindsey, S., & Schooler, T. Y. (2000). A model of dual attitudes. *Psychological Review*, 107(1), 101-126.

- Wink, P. (1991).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4), 590-597.
- Wink, P. (1996). *Narcissism.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the personality disordered*, New York: Wiley New York.
- Zeigler-Hill, V. (2006). Discrepancies between implicit and explicit self-esteem: Implications for narcissism and self-esteem insta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74(1), 119-144.
- Zeigler-Hill V., Clark, E. M. & Myers, C. B. (2010). Narcissism and self-esteem reactivity: The role of negative achievement event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4(2), 285-292.

## 부 록

- 부록 1. 병리적 자기에 척도(PNI)
- 부록 2. Rosenberg 자존감 척도(RSES)
- 부록 3. 자존감안정성척도(SES)
- 부록 4. 귀인양식 질문지(ASQ)
- 부록 5. 연구 II에 사용한 귀인양식 평가지
- 부록 6. IAT-A와 IAT-B의 단어자극 제시 순서표
- 부록 7. IAT 검사의 화면 자극
- 부록 8. Raven 지능검사 자극
- 부록 9. 연구 I의 부분상관분석표

## 부록 1. 병리적 자기에 척도(PNI)

■ 각 문장을 읽고 자신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각 문장이 자신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0에서 5점 사이의 적절한 숫자에 O표 해주십시오.

	전혀 나 같지 않다	별로 나 같지 않다	약간 나 같지 않다	약간 나 같다	꽤 나 같다	매우 나 같다
1. 나는 사람들이 나를 감탄하고 존경하는 것에 대한 공상을 자주 한다.....	0	1	2	3	4	5
2.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 말을 잘 해서 모면할 수 있다.....	0	1	2	3	4	5
3. 혼자 있을 때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느끼기가 어렵다.....	0	1	2	3	4	5
4.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지 않으면, 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된다.....	0	1	2	3	4	5
5. 나는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믿게 할 수 있다.....	0	1	2	3	4	5
6.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해준 것을 그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	0	1	2	3	4	5
7. 내가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에 다른 사람들이 흥미를 보이지 않으면 화가 난다...	0	1	2	3	4	5
8. 나는 내 주변의 세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공상을 자주 한다.....	0	1	2	3	4	5
9. 나에게서는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일이 쉽다.....	0	1	2	3	4	5
10.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 않으면, 나는 내가 무가치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다.....	0	1	2	3	4	5
11. 사람들이 나를 실망시킬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나는 종종 사람들을 피하곤 한다.....	0	1	2	3	4	5

12.	나는 가끔씩 내 인생의 중요한 사람들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시 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0	1	2	3	4	5
13.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했을 때, 나는 그들이 나를 위해서 무언가 해 주기를 기대한다.....	0	1	2	3	4	5
14.	다른 사람들이 나의 기대를 충족시켜주 지 않으면, 나는 내가 원했던 것에 대해 종종 수치심을 느낀다.....	0	1	2	3	4	5
15.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실망시키면, 나는 종종 나 자신에게 화가 나곤 한다.....	0	1	2	3	4	5
16.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을 할 때, 내가 그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된 것으로 느 껴진다.....	0	1	2	3	4	5
17.	나는 내 능력 이상의 것을 성취하는 공상 을 자주 한다.....	0	1	2	3	4	5
18.	다른 사람들이 해주었으면 하고 내가 바 라는 것을 해주지 않을 수 있다는 두려 움 때문에, 나는 종종 사람들을 피하곤 한다.....	0	1	2	3	4	5
19.	나는 비판을 받을 때 화가 난다.....	0	1	2	3	4	5
20.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게 여긴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나 자신에 대해 좋은 감정을 느끼기가 어렵다.....	0	1	2	3	4	5
21.	나는 나의 노력에 대해 보상을 받는 공상 을 자주 한다.....	0	1	2	3	4	5
22.	나에게 의지하는 친구를 두는 것을 좋아 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중요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0	1	2	3	4	5
23.	내가 사람들을 위해 한 것을 그들이 인 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에, 나는 종종 사람들을 피하곤 한다.....	0	1	2	3	4	5
24.	모든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한다.....	0	1	2	3	4	5
25.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되 지 않으면, 나 자신에 대해 좋은 감정을 느끼기가 어렵다.....	0	1	2	3	4	5
26.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사람들이 알	0	1	2	3	4	5

	아주 지 않으면, 나는 짜증이 난다.....						
27.	나는 희생함으로써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보여주려고 노력한다.....	0	1	2	3	4	5
28.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 않을 때 나는 실망하게 된다.....	0	1	2	3	4	5
29.	나는 영웅적인 행동을 하는 공상을 자주 한다.....	0	1	2	3	4	5
30.	나는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	0	1	2	3	4	5
31.	나는 나의 성취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공상을 자주 한다.....	0	1	2	3	4	5
32.	내가 원하는대로 다른 사람들이 반응해 주지 않으면, 나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0	1	2	3	4	5
33.	나에게는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0	1	2	3	4	5
34.	나는 세계의 이목을 끄는 인물이 되기를 원한다.....	0	1	2	3	4	5
35.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의견에 반대하면 나는 매우 화가 난다.....	0	1	2	3	4	5

---



## 부록 2. Rosenberg 자존감 척도(RSES)

■ 다음은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측면들에 관한 것입니다. 아래의 문항들을 잘 읽어보신 후에, 자신이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숫자에 O표 해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들만큼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2. 나는 좋은 자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	1	2	3	4	5
3. 대체로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1	2	3	4	5
5. 나는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	1	2	3	4	5
6.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1	2	3	4	5
7. 대체로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1	2	3	4	5
8.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1	2	3	4	5
9. 나는 때때로 내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1	2	3	4	5
10. 때때로 나에게 좋은 점이라곤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 부록 3. 자존감안정성척도(SSS)

■ 아래에 있는 글들을 잘 읽고 평소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과 일치한다고 판단되는 곳에 O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가치는 자주 변화한다.....	1	2	3	4	5
2.	나는 내 자신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다가도 금방 실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3.	나의 자존감은 기분에 따라 쉽게 변한다.....	1	2	3	4	5
4.	나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면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다가도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내 자신이 대단해 보인다.....	1	2	3	4	5
5.	나의 자존감은 주위환경에 의해 쉽게 변한다	1	2	3	4	5
6.	나는 나에 대한 사람들의 피드백이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나 자신을 존중하는 정도는 변하지 않는다.....	1	2	3	4	5
7.	나의 가치는 성공과 실패에 의해 좌우되기에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1	2	3	4	5
8.	나는 내 자신의 가치가 상황에 따라 변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9.	나는 칭찬을 받을 때 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내가 꾸중을 들을 때는 내 자신에 대해 부정적이 된다.....	1	2	3	4	5
10.	어떤 일에 실패를 하는 것은 나의 가치에 대한 내 생각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1	2	3	4	5

## 부록 4. 귀인양식 질문지(ASQ)

■ 다음과 같은 상황이 당신 자신에게 일어났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상황이 당신에게 일어났다면, 무엇 때문에 일어났겠는가를 생각해보십시오. 물론 사건이란 여러 가지의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얹혀져 일어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원인 한 가지를 간단히 쓰시고, 그 원인과 관련된 세 가지 질문(나, 다, 라)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 방법을 익히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시험 성적이 매우 나쁘게 나왔다.”

가) 가장 주된 원인 한 가지를 간단히 쓰십시오: 예) *집안일 때문에 공부를 못했다.*

나) 그 원인은 나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나 주변 환경 때문입니까?

(해당하는 곳에 O 표를 해주세요.)

전적으로 다른 사람 이나 주변 환경 때 문이다	1	2	3	4	5	6	7	전적으로 나 자신 때문이 다

다) 앞으로 시험 상황에서 똑같은 원인에 의해 같은 일이 반복해서 다시 나타날까요?

절대로 다시 나타나 지 않을 것이다	1	2	3	4	5	6	7	계속해서 언 제나 나타날 것이다

라) 그 원인은 이러한 시험 상황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생활의 다른 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까?

오직 이 상황에서만  
특별히 영향을 미친  
다

1	2	3	4	5	6	7

내 생활의  
모든 면 때  
문이다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리면,

- 1) 각각의 상황을 잘 읽고 그 일이 당신 자신에게 일어난다고 '상상'한 뒤,
- 2) 당신 자신은 무엇 때문에 그런 상황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지를 결정하여,
- 3) 그 주요 원인을 간단히 쓰고,
- 4) 그 원인(쓴 내용)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을 잘 읽고 당신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번호를 골라 O표해 주십시오. 이때, 1에서 7까지의 번호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물음 나)의 경우에 1은 그 원인이 전적으로 다른 사람이나 주변 환경 때문이라는 것을 나타내며, 2-3-4로 숫자가 커질수록 그 정도가 약해지며, 7은 그 원인이 전적으로 나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나타내며 6-5-4로 작아질수록 그 정도가 약해집니다.
- 5) 한 가지 상황에 대한 질문에 모두 대답한 뒤 다음 상황으로 넘어 가십시오.

### 1. 내가 만약 승진시험에 탈락한다면,

가) 가장 주된 원인 한 가지를 간단히 쓰십시오:

나) 그 원인은 나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나 주변 환경 때문입니까?

전적으로 다른 사람  
이나 주변 환경 때  
문이다

1	2	3	4	5	6	7

전적으로 나  
자신 때문이  
다

다) 앞으로 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원인에 의해 같은 일이 반복해서 다시 나타날까요?

절대로 다시 나타나 지 않을 것이다	1	2	3	4	5	6	7	계속해서 언 제나 나타날 것이다
	-----							

라) 그 원인은 이러한 상황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생활의 다른 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까?

오직 이 상황에서만 특별히 영향을 미친 다	1	2	3	4	5	6	7	내 생활의 모든 면 때 문이다
	-----							

## 2. 내가 만약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다면,

가) 가장 주된 원인 한 가지를 간단히 쓰십시오:

나) 그 원인은 나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나 주변 환경 때문입니까?

전적으로 다른 사람 이나 주변 환경 때 문이다	1	2	3	4	5	6	7	전적으로 나 자신 때문이 다
	-----							

다) 앞으로 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원인에 의해 같은 일이 반복해서 다시 나타날까요?

절대로 다시 나타나 지 않을 것이다	1	2	3	4	5	6	7	계속해서 언 제나 나타날 것이다
	-----							

라) 그 원인은 이러한 상황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생활의 다른 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까?

오직 이 상황에서만  
특별히 영향을 미친  
다

1	2	3	4	5	6	7

내 생활의  
모든 면 때  
문이다

### 3. 친한 친구가 나를 믿지 못하겠다고 말한다면,

가) 가장 주된 원인 한 가지를 간단히 쓰십시오:

나) 그 원인은 나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나 주변 환경 때문입니까?

전적으로 다른 사람  
이나 주변 환경 때  
문이다

1	2	3	4	5	6	7

전적으로 나  
자신 때문이  
다

다) 앞으로 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원인에 의해 같은 일이 반복해서 다시 나타날까  
요?

절대로 다시 나타나  
지 않을 것이다

1	2	3	4	5	6	7

계속해서 언  
제나 나타날  
것이다

라) 그 원인은 이러한 상황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생활의 다른 면  
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까?

오직 이 상황에서만  
특별히 영향을 미친  
다

1	2	3	4	5	6	7

내 생활의  
모든 면 때  
문이다

### 4. 내가 만약 집안일로 식구들과 다툰다면,

가) 가장 주된 원인 한 가지를 간단히 쓰십시오:

나) 그 원인은 나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나 주변 환경 때문입니까?

전적으로 다른 사람  
이나 주변 환경 때  
문이다

1	2	3	4	5	6	7

전적으로 나  
자신 때문이  
다

다) 앞으로 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원인에 의해 같은 일이 반복해서 다시 나타날까요?

절대로 다시 나타나  
지 않을 것이다

1	2	3	4	5	6	7

계속해서 언  
제나 나타날  
것이다

라) 그 원인은 이러한 상황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생활의 다른 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까?

오직 이 상황에서만  
특별히 영향을 미친  
다

1	2	3	4	5	6	7

내 생활의  
모든 면 때  
문이다

## 5.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의 데이트 신청을 거절했다면,

가) 가장 주된 원인 한 가지를 간단히 쓰십시오:

나) 그 원인은 나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나 주변 환경 때문입니까?

전적으로 다른 사람  
이나 주변 환경 때  
문이다

1	2	3	4	5	6	7

전적으로 나  
자신 때문이  
다

다) 앞으로 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원인에 의해 같은 일이 반복해서 다시 나타날까요?

절대로 다시 나타나 지 않을 것이다	1	2	3	4	5	6	7	계속해서 언 제나 나타날 것이다
	-----							

라) 그 원인은 이러한 상황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생활의 다른 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까?

오직 이 상황에서만 특별히 영향을 미친 다	1	2	3	4	5	6	7	내 생활의 모든 면 때 문이다
	-----							

## 6. 내가 직장에서 내놓은 아이디어가 무시되었다면,

가) 가장 주된 원인 한 가지를 간단히 쓰십시오:

나) 그 원인은 나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나 주변 환경 때문입니까?

전적으로 다른 사람 이나 주변 환경 때 문이다	1	2	3	4	5	6	7	전적으로 나 자신 때문이 다
	-----							

다) 앞으로 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원인에 의해 같은 일이 반복해서 다시 나타날까요?

절대로 다시 나타나 지 않을 것이다	1	2	3	4	5	6	7	계속해서 언 제나 나타날 것이다
	-----							



라) 그 원인은 이러한 상황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생활의 다른 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까?

오직 이 상황에서만  
특별히 영향을 미친  
다

1	2	3	4	5	6	7

내 생활의  
모든 면 때  
문이다

## 부록 5. 연구 II에 사용한 귀인양식 평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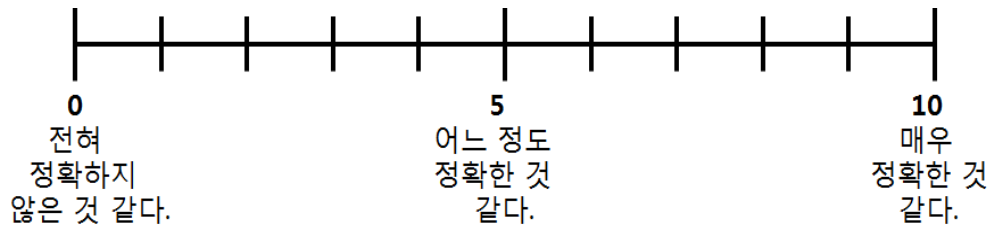
\* 모든 실험이 끝났습니다. 오랜 시간 성실히 임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아래 질문에 응답해주시길 바랍니다.

### 1. 지능 측정 프로그램

1) ‘지능 측정 프로그램’의 결과는 얼마나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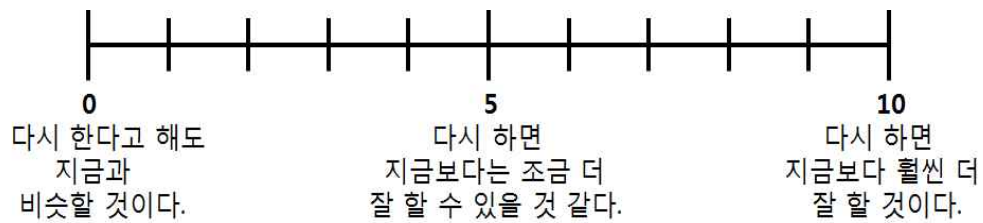
2) ‘지능 측정 프로그램’의 결과는 지능을 정확히 측정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3) ‘지능 측정 프로그램’의 결과는 나의 전체 지능 중 어느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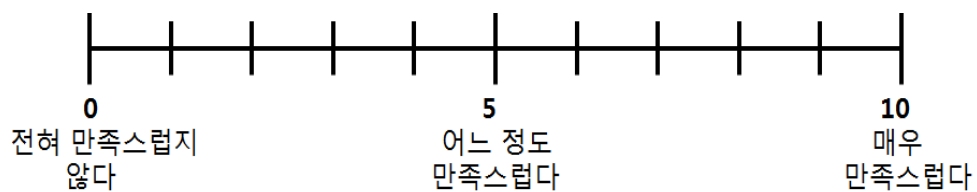
4) ‘지능 측정 프로그램’을 다시 한 번 실시한다면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불어 다시 실시하면 몇 점을 받을 것이라 예상하십니까? (0점이 최하점, 100점이 최고점일 때)



다시 실시하면 최소한 \_\_\_\_\_ 점을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

4) ‘지능 측정 프로그램’의 검사 결과, 귀하의 지능은 상위/하위 몇 % 또는 (총 890명 중) 몇 등이었습니까?

5) ‘지능 측정 프로그램’의 결과가 만족스러우십니까?



## 2. 지각적 민감성 측정 프로그램

1) IAT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또는 이전에 ‘지각성 민감성 측정 프로그램’을 실시해본 적이 있습니까?

---

2) 사실 본 연구의 목표는 빠르고 정확한 인지적 연합을 통해 수검자의 지각적 능력의 우수성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이 판단하기에 자신의 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할 때 몇 점 정도일 것 같습니까? (0점이 최하점, 100점이 최고점일 때)

지각 민감성 검사는 _____점일 것이라 생각한다.
------------------------------

## 부록 6. IAT-A와 IAT-B의 단어자극 제시 순서표

### 1) IAT-A

	왼쪽	오른쪽
연습 (20회)	나	너
연습 (20회)	좋은	나쁜
연습 (20회)	나 + 좋은	너 + 나쁜
실제 시행 (40회)	나 + 좋은	너 + 나쁜
연습 (20회)	너	나
연습 (20회)	너 + 좋은	나 + 나쁜
실제 시행 (40회)	너 + 좋은	나 + 나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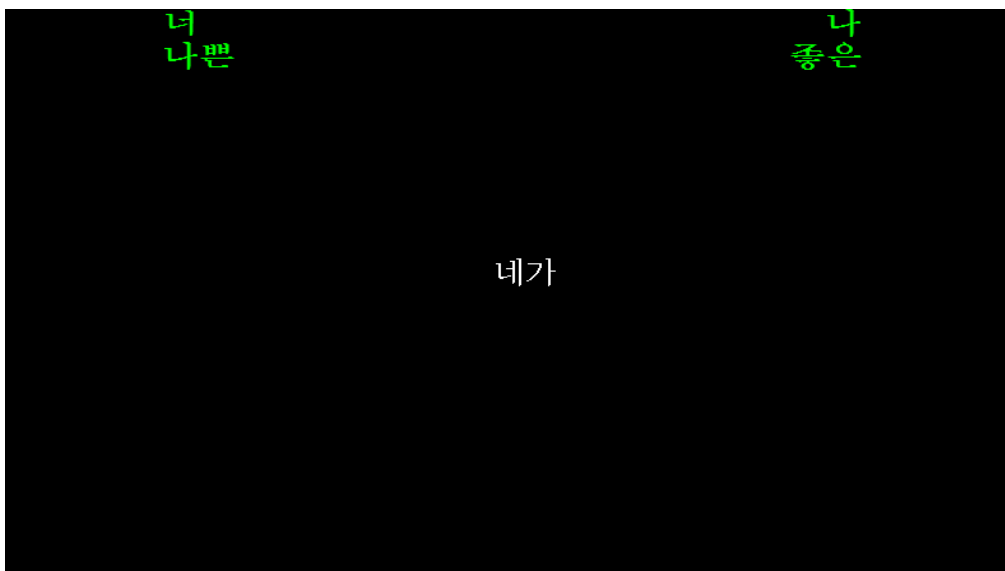
### 2) IAT-B

	왼쪽	오른쪽
연습 (20회)	나	너
연습 (20회)	나쁜	좋은
연습 (20회)	나 + 나쁜	너 + 좋은
실제 시행 (40회)	나 + 나쁜	너 + 좋은
연습 (20회)	너	나
연습 (20회)	너 + 나쁜	나 + 좋은
실제 시행 (40회)	너 + 나쁜	나 + 좋은

## 부록 7. IAT 검사의 화면 자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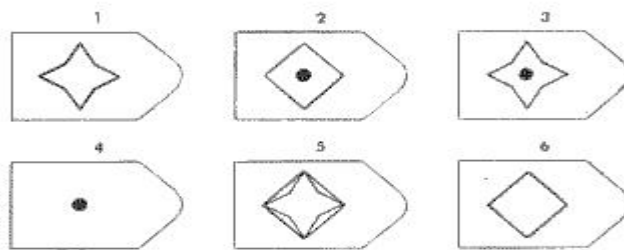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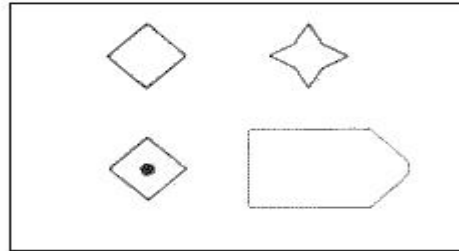


‘나’와 ‘나쁜’이 왼쪽(3번), ‘너’와 ‘좋은’이 오른쪽(9번)이 같은 키를 공유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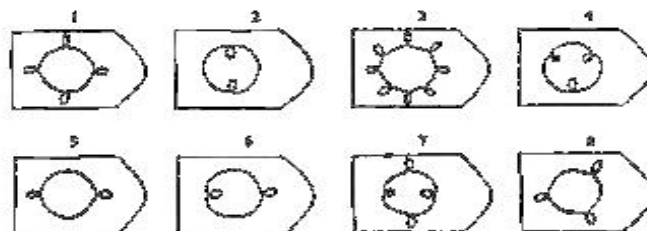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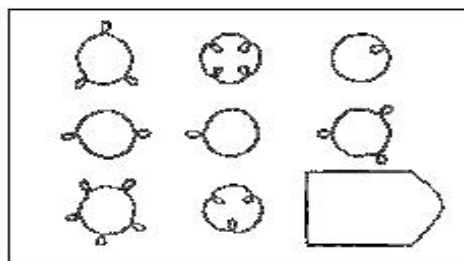


‘너’와 ‘나쁜’이 왼쪽(3번), ‘나’와 ‘좋은’이 오른쪽(9번)이 같은 키를 공유한 경우

부록 8. Raven 지능검사 자극



연습시행에 제시되는 검사



실제 검사에 사용된 Raven 지능검사 예

## 부록 9. 연구 1의 부분상관분석표

자기애적 취약성을 통제한 부분상관분석표 (N=199)

	1	2	3	5	6	7
1. 웅대성	1	.434***	.209**	-.019	-.014	.035
2. RSES	.434***	1	.436***	-.262***	-.176*	-.154*
3. SSS	.209**	.436***	1	-.225**	-.206**	-.218**
4. 귀인소재	-.019	-.262***	-.225**	1	.109	.320***
5. 귀인안정성	-.014	-.176*	-.206**	.109	1	.465***
6. 귀인 전반성	.035	-.154*	-.218**	.320***	.465***	1

주, RSES = Rosenberg Self-Esteem Scale, SSS = Self-Esteem Stability Scale.  
 \* $p < .05$ , \*\* $p < .01$ , \*\*\* $p < .001$ .

자기애적 웅대성을 통제한 부분상관분석표 (N=199)

	1	2	3	5	6	7
1. 취약성	1	-.515***	-.514**	-.040	.181*	.120
2. RSES	-.515***	1	.814***	-.261***	-.252***	-.222**
3. SSS	-.627***	.585***	.647***	-.201**	-.272***	-.253**
4. 귀인소재	-.040	-.261***	-.305***	1	.114	.323***
5. 귀인안정성	.181*	-.252***	-.352***	.114	1	.476***
6. 귀인 전반성	.120	-.222**	-.283***	.323***	.476***	1

주, RSES = Rosenberg Self-Esteem Scale, SSS = Self-Esteem Stability Scale.  
 \* $p < .05$ , \*\* $p < .01$ , \*\*\* $p < .001$ .



Self-esteem and attributional style  
in relation to vulnerability and grandiosity  
of pathological narcissism

Cho-rong, Hong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introduce the new concept, 'Narcissistic phenotype' and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narcissistic phenotypes, Self-Esteem(SE), and Attributional styles more systematically. There are two narcissistic phenotypes, which one is narcissistic vulnerability and another is narcissistic grandiosity.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subtypes of Pathological Narcissism(PN), which are classified by the relative level of narcissistic phenotypes, were also identified.

Study 1 consisted of three analyses. In correlation analysis, 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PNI), Rosenberg Self-esteem Scale(RSES), Self-esteem Stability Scale(SSS), and Attributional Style Questionnaire(ASQ) from 199 College students were investigated. It was found that narcissistic vulnerability is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level of self-esteem and self-esteem stability and positively correlated with stable and general attribution on negative life events. Narcissistic grandiosity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level of self-esteem and negatively correlated with self-esteem stability. Following the correlation analysis, the differences between subtypes of PN classified by the relative level of narcissistic phenotypes were analyzed. Whereas Vulnerability subtype was more generally attributed to negative life events and has lower

SE level and SE stability than other groups, Grandiosity subtype had lower SE stability than the control group. At last, a mediate analysis was found that a general attributional style on negative life events partly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narcissistic vulnerability and SE.

Study 2, which is an experiment study, was aimed to replicate and expand the findings of study 1. The author hypothesized that subtypes of PN both have low and unstable implicit self-esteem, but they differ on a level and stability of explicit self-esteem because of their difference of general attributional style on a negative feedback. 9 Vulnerability narcissism, 8 grandiosity narcissism, and 12 control group selected from study 1 were participated in study 2. Implicit Association Test(IAT) was facilitated to measure implicit self-esteem and a manipulated negative consequence of Raven Intellectual Test was presented to all participants. However, Hypotheses of study 2 were all rejected after experiment.

The present study has several implications. It contributes to expand the understanding on PN, establish the relationships between PN, SE, and attributional styles more systematically, and find out the similarity between two subtypes of PN; SE instability. Some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 Pathological Narcissism, Narcissistic vulnerability, Narcissistic Grandiosity, Attribution(al style), Self-esteem, Self-esteem stability

Student Number : 2011-20131